

<http://news.kotra.or.kr>

2016.12. 발행



쿠바

KOTRA 아바나 무역관 작성

KOTRA COUNTR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I. 국가 일반

국가 개요	2
정치사회동향	4
한국과의 주요 이슈	12

II. 경제

경제지표 DB	14
경제동향 및 전망	14
주요 산업동향	18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3

III. 무역

수출입동향	24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6
수입규제제도	29
관세제도	30
지식재산권	32
통관절차 및 운송	33
시장 특성	33
바이어 발굴	35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36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36
수출 성공실패사례	37
수출 시 애로사항	37

IV. 투자

투자환경	39
외국인 투자동향	40
한국기업 투자동향	43
주요 투자법 내용	43
진출형태별 절차	48
투자입지여건	49
노무관리제도	54
조세제도	56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7

V. 비즈니스 참고정보

물가정보	58
이주정착 가이드	59
유관기관 웹사이트	59



자료원: CIA

I.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쿠바공화국(República de Cuba) 수도 Ciudad de la Habana, 15개 Provincia, 1개 Municipio Especial로 구성 2011년 아바나주를 아르떼미사와 마야베게주로 분할, 1개주가 늘어남.
위치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서 국가(서쪽: 멕시코, 북쪽: 미국 플로리다, 동쪽: 아이티)
면적	110,860km ² (한반도의 1/2) 땅: 109,820km ² , 물: 1,040km ² , 경작지: 8,703km ² (2011년)
기후	아열대 기후 12월~2월: 18℃~27℃, 3월~11월: 24℃~32℃ 11월~4월: 건조기, 장마철: 5월~10월
수도	아바나(스페인어 표기: Ciudad de la Habana 영어 표기: Havana)
인구	11,047,251만 명(2014년 7월)
주요도시	아바나(La Habana): 수도. 정치 및 경제 중심지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제2의 도시. 쿠바 동부 바라데로(Varadero): 중부 마탄사스주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
인종	백인: 64.1%, 메스티조(스페인인과 북미 원주민의 피가 섞인 아메리카 사람): 26.6%, 흑인: 9.3%
언어	스페인어(Spanish)
종교	가톨릭교: 85%, 그 외 신도교, 여호와의 증인(그리스교 한 종파), 유대인교, 산테리아(아프리카 기원 쿠바 종교)
시차	한국 시각보다 14시간 늦음(한국의 정오는 전날 밤 10시) 4월부터 9월경까지 일광절약시간제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
독립일	1898년 12월 10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늦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함)
정부형태	국가평의회(Consejo del Estado)에 모든 권력 집중 삼권(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국가평의회에 집중
국가원수	라울 카스트로 루스(Raul Castro Ruz) 국가평의회 의장 취임일: 2008년 2월 24일, 임기: 5년 (연임가능)
실권자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 쿠바군 최고사령관, 공산당 제 1서기 2011년 4월 6차 공산당 전당대회 시 전임인 형 피델 카스트로는 공산당 제1서기직을 라울 에게 물려주고 물러남.

주: 2015년 5월 확인 기준

자료원: CIA world fact book(2015년 5월 1일 업데이트 자료원)

나. 경제지표

GDP	*771억 5,000만 달러(2013년), *821억 5,600만 달러 (2014년), *88,717백만 달러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	2.7%(2013년) *1.2%(2014년), *3.5%(2015년)
1인당 GDP	1인당 GDP: 1만 1,606달러(2013년), 1만 1,956달러(2014년), *1만 2,619달러(2015년) 무상 제공되는 공공의료 및 교육을 포함, 구매력평가에 의해 산출
실업률	*3.3%(2013년), *3.6%(2014년), *3.9%(2015년)
물가상승률	*6.0%(2013년), *5.3%(2014년), *4.4%(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화폐단위	태환페소(CUC): USD, 유로 등 외환과 환전 가능한 화폐. 일반 공산품 구매 시 사용 불태환페소(CUP): 외환과 환전 불가능. 배급품 구매 및 농산물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환율	CUP:US\$ (end-period) 2012년: 1.00달러/ 2013년: 1.00달러/ 2014년: 17.47달러/ 2015년: 14.50달러
외채	*246억 5,300만 달러(2013년), *252억 1,200만 달러(2014년), *257억 5,900만 달러 (2015년)
외환보유고	*101억 300만 달러(2013년), *104억 300만 달러(2014년), *102억 300만 달러(2015년)
산업구조	농수산업(4.9%), 광업(2.1%), 건설업(6.0%), 에너지(2.1%), 제조업(14.0%), 서비스업 (70.2%) (2010년 추정, EIU)
교역규모	2012년 - 수출: 59억 달러, 수입: 138억 6,900만 달러 2013년 - 수출: 55억 6,600만 달러, 수입: 147억 7,300만 달러 2014년 - 수출: 55억 3,700만 달러, 수입: 149억 8,500만 달러 2015년 - 수출: 62억 7,400만 달러, 수입: 153억 1,500만 달러
교역품	수출: 고기 및 고기내장, 음식의 잔여물, 지방종자 및 기름기 많은 과일, 곡물 등 수입: 공산품 대부분, 곡물, 원유, 식료품, 과일 및 견과류, 동물·식물성 지방

주*: EIU 추정치

주: 2015년 4월 확인 기준

자료원: EIU, KITA

다. 한-쿠바 관계

체결협정	없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류는 KOTRA 아바나무역관 및 주멕시코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활발히 진행 중). 미수교국이며 북한의 우방국으로 2010년 대북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교역규모	2011년 대쿠바 수출: 7,420만 달러, 대쿠바 수입: 2,977만 달러 2012년 대쿠바 수출: 5,794만 달러, 대쿠바 수입: 973만 달러 2013년 대쿠바 수출: 5,784만 달러, 대쿠바 수입: 973만 달러 2014년 대쿠바 수출: 5,581만 달러, 대쿠바 수입: 1,217만 달러 2015년(~3월) 대쿠바 수출: 651만 달러, 대쿠바 수입: 196만 달러 2011년 한시적으로 수입한 나프타 수입 중단
교역품	대쿠바 수출: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승용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의약품 대쿠바 수입: 주류, 연초류, 알루미늄괴및스크랩, 당류, 커피류,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축산

	물부산물
투자교류	없음(민관을 통틀어 한국 기관 및 기업은 KOTRA가 유일).
교민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약 1천여 명 있으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상실 상태 최근 10년 이내 쿠바에 상주하기 시작한 한국 국적자는 20명 내외이며 코트라 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주: 2015년 4월 확인 기준
자료원: KITA,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제도

체제	공화제(사회주의)
국가원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회의장(각료 평의회 의장 겸임, 2008년부터)
의회	일원제 (국민권력전국회의, 614명으로 구성)
헌법	1976년에 현재 헌법 제정, 1992년과 2002년에 개정 1992년의 헌법 개정에서 쿠바를 사회주의국가로 정의(제1조) 2002년의 개정에서 '사회주의체제는 불가침'이라는 조항을 추가
국가평의회	인민권력전국회의에서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권력이 집중(수장인 국가평의회장이 국가 원수) 내각과는 별개로 존재
입법부	인민권력전국회의가 존재(일원제) 처음에는 대의원을 국민권력지방회(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2년부터 국민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2번의 정기 회의가 개최. 의원 중 31명의 국가평의회 의원을 선출
행정부	내각에 해당하는 정치기관으로서 각료평의회가 존재 각료평의회 의장, 제일부의장, 부의장 8명, 각 국가위원회 의장 11명 및 각부 장관 23명으로 구성 수상(정부수반)에 해당하는 각료평의회회의장은 국가평의회회의장이 겸임한다.
정당	합법정당은 쿠바공산당(PCC)만 존재 헌법 제 5조에 PCC는 '사회와 국가의 최고의 지도 역할'이라고 명시 당의 유력 하부조직으로서 '청년공산주의자동맹'이 있음. 간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제한적
사법부	대법원으로서 인민최고재판소가 존재 대법원장은 국민권력전국회의에서 선출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위 법원은 각 주의 자치체에 있다. 특별 법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혁명재판소가 존재
반정부조직	주요 세력으로서 대 피델 카스트로 정권 강경파의 쿠바계 미국인 재단(CANF)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다.

나. 정치 동향

1959년, 쿠바혁명에 의해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수립되었다. 통치기구인 입법기관이며 국권의 최고 기관이었던 인민권력전국의회와 그로부터 선출되었던 31명의 집권지도기관인 국가평의회, 행정부인 각료평의회, 사법기관인 인민최고재판소로 구성되었다. 1993년, 처음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인민권력전국의회를 개최하였다. 전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었다. 2008년 1월, 전국회의선거가 실시되어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포함하여 614명의 입후보자 전원이 당선되었다.

2005년 7월31일 피델 카스트로의 장출혈 수술 및 건강문제로 인해 2005년 8월부터 동생 라울 카스트로(국가평의회 부의장, 국방부 장관)가 임시 권력 이양을 받아 쿠바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큰 변화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소극적, 제한적 국정 운영에 그쳤다.

2008년 2월 18일 피델 카스트로는 국가수반 사임의사를 공식 발표하여 49년 만에 쿠바의 공식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24일 쿠바 국민권력회의(국회) 1차 정기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쿠바의 국가수반이 공식 교체되었다.

라울 카스트로는 실용주의자, 경제개혁주의자, 중국식 사회주의 신봉자 등으로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어 쿠바의 변혁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2008년 3월 이후 라울 카스트로가 시행한 일련의 규제완화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다.

- 외국인 전용 호텔의 쿠바인 투숙 허용
- 쿠바인의 휴대폰 직접 계약 허용
- 쿠바인의 렌트카 직접 계약 허용
-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PC의 일반 판매 허용
- 2개 이상의 공식 직업 허용(2009년 7월)

그러나 상기 규제완화 조치는 권력승계 단계에서의 민심 이반 차단을 위한 대 국민 선심용 정책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군부 측근세력을 2009년 3월 주요 장관 보직에 기용 하였으며, 피델 카스트로 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부에서 차세대 권력 승계자로 평가 받던 경제 총괄 까를로스 라헤(국가평의회 부의장)와 펠리페 페레스 로게(외교부 장관)를 축출하였다.

2009년 이후 실질적인 개혁조치 미흡과 날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라울 카스트로의 인기가 날로 하락하였으며, 쿠바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2010년 7월 이후 피델 카스트로가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2010년 쿠바정부의 반체제 인사인 “오를란도 사빠따”가 85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2010년 2월에 사망한 이후 유럽의회의 쿠바재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추가로 반체제 인사인 “기예르모 파리나스”의 단식투쟁이 130일간 지속되자 2010년 7월 전격적으로 반체제 인사 52명을 전격 석방하여 스페인으로의 망명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최악으로 치달는 경제상황에서 유럽 등 서방세계의 압력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1년 4월 14년만의 공산당 전당대회(6차)를 개최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당 제 1 서기직에서 사퇴하고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제 1 서기직으로 취임하여 실질적 모든 권한을 라울이 장악하였다. 쿠바 공산당은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 시 300여 개의 경제사회개혁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요골자: 배급제 축소 및 폐지, 차량 및 주택의 매매허용, 자영업 육성, 외국인 투자 활성화, 해외관광여행허용 검토, 부정부패 근절

경제사회개혁안에 따라 최근 추진된 주요한 정책변화는 아래와 같다.

○ 자영업 육성

178개 영세 자영업종을 2010년 말부터 허용하게 된다.

주요업종: 택시 등 운수업, 주택임대업, 개인식당, 이발소, 수리공, 청소업 등
경제사회적 영향

자영업자 수 확대('10년 5만명 -> '12년 35만명)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운수업, 음료판매점, 주택임대업, 개인식당을 중심으로 자영업이 확대되고 관련 투자가 증가: 부족한 운송수단이 확충되고 식당운영 등을 위한 설비시장이 확대

쿠바정부 세수 확대: 자영업자별 세금 납부 의무 부과

○ 중고자동차 매매 허용

2011년 10월 1일부 시행

혁명 이후 50년간 금지되었던 쿠바의 개인간 자동차 매매가 전격 허용

○ 주택 매매 허용

2011년 11월 10일부 시행

소유는 하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 취득을 불허하던 쿠바식 소유권이 50년 만에 폐지되고 자본주의식 소유권으로 전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유발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2012년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주택매매 건수가 4만5,000건이나 중개인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활동이 금지되어 일반인들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대금의 일부를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받는 방식 등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배급제 및 정부보조 축소

2010년 이후 점진적 추진 중

쿠바 정부의 가장 큰 재정부담인 배급제의 점진적 축소가 추진 중으로 2010년 담배보조금 폐지, 2011년 욕실용품(비누, 샴푸 등) 폐지, '10년 직장 내 배식 폐지 및 축소, 2011년 유류보조금 폐지 등 배급제의 축소가 점진적으로 추진 중

경제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자영업 허가 등 경제활성화 정책과 병행되어 국민들의 체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가의 호텔 직거래 허용 및 은행 가계대출 허용: '11년 11월부 시행
- 여행자유화 선포

2013년 1월부 시행

쿠바인을 비롯한 쿠바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반드시 관리 정부기관에 사전 출국허가를 받았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했으나 동 제도의 전격 폐지

다. 외교

쿠바는 유엔가입국 195개국 중 184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등 외교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11년 기준 145개 외교공관이 쿠바에 주재) 사회주의 혁명이념의 세계적 전파를 명문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 봉쇄 및 관타나모 기지 등 주요이슈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국가와의 연대를 중시, 2006년~2009년 7월까지 비동맹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대개도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 소련 붕괴 이후 저조했던 대 러시아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 2009년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의 현정권과는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대 베네수엘라 관계가 1990년의 차베스 대통령 취임 이후 긴밀해진 상황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에서 남미 국가들의 통합을 추진 도중 2013년 차베스 사망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카스트로 정권 설립 직후 쿠바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을 국유화했던 것을 발단으로 1961년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1962년 미국은 쿠바에서의 수출입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등 쿠바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개시하였고 이에 쿠바는 미국에 대해 무조건 관계 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관타나모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쿠바에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의 실현, 민주적인 선거, 복수정당제, 정치범의 석방 등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였고 부시 전 대통령은 쿠바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대화를 중시하여 미국이 견지해 오던 강경한 대 쿠바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거주 쿠바인의 본국 방문 및 본국 송금 규제가 완화되었고, 문화교류도 확대되는 등 양국 간 긴장 관계 완화 노력이 급진전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에도 새롭게 학술, 교육, 문화, 종교를 목적으로 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허용하였으며 쿠바계 이외의 미국인이 쿠바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 미-쿠바 간 이민 협의 및 양자 직접 우편 서비스 재개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해외 친인척 송금은 악화된 쿠바경제가 숨통을 트는데 일조하고 있어 송금완화 및 허용 쿠바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된 것으로 외국기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 측에서는 미국인의 쿠바 방문 완전 자유화, 대 쿠바 경제 엠바고 전면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쿠바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베네수엘라,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원유 저가 공급, 쿠바 의료진과 교사의 대 베네수엘라 서비스 수출은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 억불에 달하는 중국 및 브라질 차관도 쿠바 경제의 구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대북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천안함 사태관련 미국의 사주를 받은 한국의 조작극으로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남측의 도발에 대해 북측이 응징을 한 것이라고 공산당 기관지(Granma)를 통해 보도한바 있다.

쿠바가 반핵 국가인 관계로 2013년 3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었으며 남한의 키리졸브 훈련 및 남한에서도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서만 연일 보도하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주력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및 6월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Granma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한측에 경고를 보냈으며 남북대화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이 아닌 서울로 라디오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서서히 남한 측에 대한 지지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쿠바 내 한국드라마 방영, 한국어 강좌 개강, 2013년 8월 40여명의 쿠바 공연단의 남한 방문 등 의미 있는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양국간 관계가 차차 개선되고 있다.

라. 사회

강력한 경찰 및 정보기구를 운영 중에 있다.

마을별 구역별로 정치조직인 “혁명방어위원회”가 조직, 주민감시 역할 수행하고 있다.

경찰도 구역별로 주민감시체제를 운영 중에 있다.

“위험인물(Estado de Peligro)”이라는 죄목으로 언제든지 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

쿠바인은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과의 직접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인터넷 및 위성통신 및 해외 방송 청취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의 활동은 감시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주도 민간 사찰이 성행하는바 도청뿐만 아니라 전화 및 이메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 국가평의회 위원 및 장관

국가평의회는 쿠바 최고 통치기구로서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5명, 서기 1명, 평의원 23 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각료회의는 권력실세 및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장, 미구엘 디아즈 카넬이 양 기구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군부 세력이 양 기구 핵심 보직에 임명되어 있다.

2009년 말부터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군부인사를 중심으로 핵심 각료를 중용하고 있다.

각료회의 구성

성명	직위	생년월일
Raul Castro Ruz	대통령	1931.6.3.
Miguel Diaz-Canel Bermudez	수석 부통령	1960.4.20.
Jose Ramon Machado Ventura	부통령	1930.10.26.
Ramiro Valdes Menendez	부통령	1932.4.28.
Ricardo Cabrisas Ruiz	부통령	1937.1.21.
Ulises Rosales del Toro	부통령	1942.3.8.
Antonio Enrique Lusson Battle	부통령	
Marino Alberto Murillo Jorge	부통령	1961.2.19.
Adel Onofre Yzquierdo Rodriguez	재정기획부 장관 Ministro de Economia y Planificacion	1945.6.12.
Abelardo Colome Ibarra	내무부 장관 Ministro del Interior	1939.9.13.
Gustavo Rodriguez Rollero	농업부 장관 Ministro de la Agricultura	1963.6.21.
Mary Blanca Ortega Barredo	대내무역부 장관 Ministro de Comercio Interior	1962.11.17.
Rene Mesa Villafana	건설부 장관 Ministro de la Construcccion	1958.4.7.
Ena Elsa Velazquez Cobiella	교육부 장관 Ministro de Educacion	1956.4.19.
Rodolfo Alarcon Ortiz	고등교육부 장관 Ministro de Educacion Superior	
Leopoldo Cintra Frias	국방부 장관 Ministro de las Fuerzas Armadas	1941.7.17.
Linda Olinda Pedraza Rodriguez	재무부 장관 Ministro de Finanzas y Precios	1955.9.16.
Maimir Mesa Ramos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ro de Informatica y Comunicaciones	
Maria del Carmen Concepcion	식품부 장관 Ministro de la Industria Alimentaria	1957.9.15.
Salvador Pardo Cruz	산업부 장관 Ministro de Industria	1947.12.20.
Maria Esther Reus Gonzalez	법무부 장관 Ministro de Justicia	1962.5.23.
Bruno Eduardo Rodriguez Parrilla	외교부 장관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1958.1.22.
Roberto Morales Ojeda	보건부 장관 Ministro de Salud Publica	1967.6.15.
Margarita Marlene Gonzalez	노동복지부 장관	1964.7.20.

성명	직위	생년월일
	Ministr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Cear Ignacio Arocha Masid	교통부 장관 Ministro de Transporte	1959.2.1.
Manuel Marrero Cruz	관광부 장관 Ministro de Turismo	1963.7.11.
Rodrigo Malmierca Diaz	대외무역부 장관 Ministro de Comercio Exterior	1956.10.14.
Ernesto Medina Villaveiran	중앙은행 총재 Ministro Presidente del Banco Central	1955.7.22.
Elba Rosa Perez Montoya	과학기술부 장관 Ministro de Ciencia y Tecnologia	
Alfredo Lopez Valdes	에너지광업부 장관 Ministro de Energia y Minas	
Ines Maria Chapman Waugh	수력청 청장 Presidente del Instituto Nacional de Recursos Hidraulicos	1965.9.9.
Ramon Martinez Echevarria	항공해양청 청장 Presidente del Instituto de Aeronautica	1957.1.3.
Danylo Sirio Lopez	방송통신청 청장 Presidente del Instituto de Radio y TV	1950.12.24.
Julio Christian Jimenez Molina	체육청 청장 Presidente del Instituto de Deportes	1951.11.12.

국가평의회 구성

성명	직위	비고
Raul Castro Ruz	의장	각료회의 대통령
Miguel Diaz-Canel Bermudez	수석 부의장	각료회의 수석 부통령
Jose Ramon Machado Ventura	부의장	각료회의 부통령
Ramiro Valdez Menendez	부의장	각료회의 부통령
Salvador Antonio Valdes Mesa	부의장	공산당원
Gladys Maria Bejerano Portela	부의장	감사원장
Lazara Mercedes Lopez Acea	부의장	공산당원
Homero Acosta Alvarez	서기	공산당원
Marino Alberto Murillo Jorge	구성원	각료회의 부통령
Adel Onofre Yzquierdo Rodriguez	구성원	각료회의 재정기획부 장관
Abelardo Colome Ibarra	구성원	각료회의 내무부 장관
Ines Maria Chapman Waugh	구성원	각료회의 수력청 청장
Leopoldo Cintra Frias	구성원	각료회의 국방부 장관
Bruno Eduardo Rodriguez Parrilla	구성원	각료회의 외교부 장관
Alvaro Lopez Miera	구성원	국방부 장군

성명	직위	비고
Guillermo Garcia Frias	구성원	국방부 장관
Yaramis Armenteros Medina	구성원	
Lester Alain Aleman Hurtado	구성원	원유 재련기관 청장
Martha Carmen Mesa Valenciano	구성원	Oriente 대학총장
Miriam Nicado Garcia	구성원	Ciencias Informatica 대학총장
Miguel Angel Barnet Lanza	구성원	UNEAC 총장
TainaLeon Silveira	구성원	공산당 지방의장
Carlos Rafael Minranda	구성원	공산당원
Liz Belkys Rosabal Ponce	구성원	UEP 총장
Carmen Rosa Lopez Rodriguez	구성원	공산당원
Felix Gonzalez Vigo	구성원	ANAP 총장
Miladys Orraca Castillo	구성원	유전학회장
Ileana Amparo Flores Morales	구성원	2 de Septiembre 사장
Sergio Juan Rodriguez Morales	구성원	INVIT 총장
Teresa Maria Amarelle Boue	구성원	FMC 사무총장
Yuniaski Crespo Baquero	구성원	UJC 사무총장

바. 최신동향

1959년 쿠바 바티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는 토지개혁 및 민간기업 국유화, 반체제 인사 처형 등을 단행하며, 미서전쟁 이후 쿠바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던 미국의 기대를 우려로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는 카스트로의 미국 방문 및 닉슨 당시 부통령과의 회담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의 미국 기업 자산 국유화에 대해 경제 제재로 응수하였다. 미-쿠바 관계는 쿠바가 소련-쿠바 무역협정 체결 등 소련과의 협력 강화 및 공산주의 국가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결국 1961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 쿠바 대사관 폐쇄 및 쿠바와의 단교를 선언한다. 쿠바와의 단교 며칠 후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쿠바 망명자를 쿠바에 상륙시켜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노린 ‘피그만 침공’ 작전을 실행하였으나 실패에 그치고 만다.

피그만 침공 이후 안보 강화를 위한 쿠바와 미국에 대한 핵 공격력 강화를 위한 소련은 쿠바에 탄도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발견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소련의 쿠바 내 핵무기 기지 건설 계획을 알렸으며,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한 제3차대전까지 고려하게 된다. 결국 쿠바 미사일 위기는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의 철수와 함께 일단락되었으나, 쿠바는 냉전 기간 동안 남미, 아프리카 등지 내 반미, 공산 반군에게 병력 및 물자를 제공하여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1960년부터 미국은 쿠바에 대한 각종 제재를 도입하였는데, 60년에는 쿠바에 대한 수출, 61년 외교 단교 62년에는 수입을 포함한 모든 교역 및 거래를 중단하였다. 미국은 1982년에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냉전이 끝난 1992년에도 쿠바민주화법을 도입하여 해외에 위치한 미국 자회사의 쿠바 거래 금지, 쿠바 기항 선박 미국 입항 금지 등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1996년, 쿠바의 반 카스트로 단체 소속 미국 민간기 2대 격추 사태 이후 도입된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은 미국 대통령의 제재 해제 권한을 제한하고 해제 조건을 카스트로 정권이 배제된 정권 이양으로 명문화하였다. 주요 대선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에 주로 거

주하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도 그간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쿠바 제재를 적극 지지하여, 미국의 對쿠바 경제 제재 완화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적대적 기류는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2008년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의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선임과 함께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대층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양국관계를 원하는 쿠바계 미국인 일부와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및 통신 분야의 제재를 완화하였으며,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미국과 모든 현안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12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국장에서 만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서로 약속하여 미국과 쿠바가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주었다.

2014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평의장은 미국과 쿠바 양국이 관계 정상화 및 궁극적인 제재 해제를 목표로 양국이 협상을 진행해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관계 정상화의 조치로 쿠바는 반정부 인사에게 통신 설비를 제공한 혐의로 쿠바에 억류되어 있던 앨런 그로스 및 일부 인사를 석방하였으며, 미국도 미국에 대한 첩보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쿠바인들을 석방하였다. 2014년 12월 선언을 바탕으로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2015년 1월 16일, 쿠바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였다. 이번 조치로 상무부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관련 기기와 민간용 자재 및 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였고, 재무부는 특정 방문 목적에 대한 쿠바 여행을 허용함과 동시에 쿠바 송금 한도액을 기존 분기당 500 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2015년 4월 11일 파나마에서 개최된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양국 외교 단절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고 양국간의 대화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4일 33년 만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대사관 설치 등 양국관계 정상화에 대한 결심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쿠바 간의 정상화를 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회 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정상화 반대를 표명하여 추가적인 경제 제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이자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뽑히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정상화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인 쿠바계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도 행정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오직 쿠바 내 민주적 정부 이양, 혹은 의회의 쿠바자유민주연대법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화당이 상, 하원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 경제 제재 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정치

쿠바와 우리나라는 미수교 상태이다. 1949년 7월 쿠바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바 있으나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단절하였다. 반면 1960년 쿠바와 북한이 수교하고 1961년 양측이 상주공관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쿠바와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 동지로서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쿠바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수교를 못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은 쿠바-북한 수교 50주년으로 쿠바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천안함 사태 등과 관

련 북한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으로 북한과 매우 밀접하나 최근 들어 우리와 경제 및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양국 관계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경제

양국간 정치적 미수교 상태이나 쿠바는 우리나라를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KOTRA에서 10여년간 아바나국박에 정기적으로 참가한 이후 2004년 말 KOTRA 아바나 무역관(KBC) 개설을 공식 허용하였으며, 2005년 9월 12일 무역관을 공식 개설하여 활동 중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등 대기업 제품들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쿠바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에 걸쳐 현대중공업이 이동식 컨테이너형 발전기 544대 총 U\$7억5천만을 수주하여 2008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지 공사여건으로 인해 2010년까지 설치가 진행 되었다.

현대중공업의 발전기 납품으로 인해 쿠바전력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태환페소인 CUC 지폐(10 CUC) 도안에 현대중공업의 발전기 그림이 사용되는 등 현대중공업의 사례는 한국제품이 쿠바시장진출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또한 삼성, LG의 경우 쿠바 가전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엑센트와 소나타를 중심으로 연간 3,000여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진출을 토대로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쿠바의 9대 교역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2011년의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3번째로 쿠바와 많은 교역을 한 나라가 되었다.

2011년 8월 우리나라 현대차, 현대중장비, 한국타이어 등을 취급하던 쿠바 내 가장 큰 외국계(캐나다) 중계상(Tokmakjian사)을 부정부패 혐의로 영업정지 시켜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우리나라 제품의 대 쿠바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나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차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쿠바에서 영업하던 교포무역업체 (암펠로스) 영업허가권을 정지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발전기 부품 및 의료기기 등의 쿠바 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4				
국가 일반	인구	천 명	1,120만 명(2013), 1,120만 명(2014)				
	면적	km ²	106,440				
	한반도 대비면적	배	0.5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2.8	3.0	2.7	1.2	3.5
	1인당 GDP	US\$	10,646	11,166	*11,606	11,956	12,619
	명목 GDP	US\$ 백만	*70,059	*73,139	*77,150	82,156	88,717
	실질 GDP	US \$ 백만	56,939	-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8	*5.5	*6.0	*5.6	*4.4
	이자율	%	2.5	2.5	2.5	2.5	2.5
	실업률	%	3.2	3.5	3.3	3.6	3.9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 백만	6,170	5,900	*5,566	*5,537	*6,294
	수입실적	US\$ 백만	-14,019	-13,869	*-14,773	*-14,985	*-15,315
	대외의존도	%	28.82	27.03	26.36	24.98	24.56
	무역수지	US \$ 백만	-7,850	-7,970	*-9,207	*-9,448	*-9,021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US\$ 백만	-	-	-	-	-
	총외채	EUR 억	*22,716	*23,324	*24,653	*25,212	*25,759
	외환보유고	US \$ 백만	*7,403	*8,903	*10,103	*10,403	*10,203
	해외투자액	US\$ 백만	-	-	-	-	-
	환율	US\$	3.8	11.0	7.1	*4.7	*7.5

주1: 실질 GDP는 2005년 달러 기준

주2: 무역수지는 서비스 포함

주3: *는 EIU 추정치

자료원: EIU(2015년 5월 기준), WORLD BANK(면적, 실질 GDP),
KOTRA(한반도, 대비면적, 대외 의존도), 쿠바중앙은행(이자율)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황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구소련의 경제 및 군사원조 중단(당시 전체 교역량의 80%이상 구소련 블록 의존)을 경험하고, 1992년에는 미국의 “쿠바 민주화법” 제정을 통해 대쿠바 금수조치가 강화되면서 1990년대

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외국 인투자를 개방하게 되었다.

1993년 독립채산제 실시, 사적이익 용인, 농산물 자유시장허용
1995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투자부문 개방 확대

1994년에는 0.7% 성장을 시발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EU 등의 대쿠바 무역 및 투자 증대, 관광 수입 및 해외 개인 송금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관광산업은 최대의 외화 획득원으로 부상하였다.

1996년 미국은 “쿠바 민주화 강화 법안(헬름스 버튼 법안)” 제정을 통해 대 쿠바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 쿠바 투자비용이 상승하고 쿠바 외환보유 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2004년 6월에는 미국이 신 대쿠바 제재 조치를 발효하면서 현금송금, 쿠바 방문 횟수 및 현금소지 한도 축소, 소포 송부, 교육 방문 등 제한되었다.

쿠바정부는 미국의 견제를 우려하여 무역 및 투자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미국의 대 쿠바 제재 일부 완화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 쿠바 정부도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기대.
2009년 미국 거주 쿠바인의 본국 방문 정책 일부 완화
합법적 방문주기: 종전 3년에서 제한 철폐
송금액: 종전 분기당 300달러에서 제한 철폐
쿠바 체류기간: 종전 21일에서 무제한
쿠바 내 달러 사용한도: 종전 1일 50달러에서 179달러

2009년 6월 쿠바 내 외국인회사의 구좌동결조치 단행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관광수입 급감, 주 수출품인 니켈가격의 하락, 최대 수입품인 쌀 가격의 상승 등 잇단 악재로 인해 외화부족 상태가 심화되어 급기야 쿠바 내 외국인회사 전체의 구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통해 부족한 외화 조달을 시도
이에 따른 외국인회사의 철수가 잇따르고 불만이 심화되자 2010년 4월 이후 동결된 자금을 대한 이자 지급을 선언하였으나 상당수의 외국인 기업이 타격을 입었음.

2010년 이후 니켈가격 호전 및 배급물량 축소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쿠바정부 재정이 다소 확충되었으며, 5만개에 불과하던 자영업을 30만개까지 확대함에 따라 배급축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일정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

30만 개의 자영업은 80년대 말의 32만 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현지화인 CUP로 운영되는 서비스업 (스낵판매, 운송, 숙박업, 음식점)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조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 면허 취득자의 60%가 무직자였으므로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쿠바정부가 표방한 공공부문 감축(단기 50만명, 중장기 100만명)은 실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2011년 4월이후 교육과 보건부문을 필두로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어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약 35만명 정도가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들은 정부에서 허용하기 시작한 소규모 식당 (Paladar)이나 개인 택시, 가게 등으로 흡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쿠바정부는 외형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쿠바의 최대 유통망 중의 하나였던 CUBALSE를 해체하여 대부분의 상점망을 국방부 산하 TRD로 편입하고 2010년9월 CIMEX라는 대형유통망의 사장을 해임하고 국방부에서 사장을 대행, 사실상 모든 국영상점망을 국방부로 편입하였다.

쿠바 독점통신회사의 외국자본(이탈리아 텔레콤) 지분을 국방부 산하 기업에서 인수하는 등 통신분야도 국방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수출품인 니켈 가격 하락과 최대 수입품인 쌀 가격 상승, 관광수입의 감소, 대형 허리케인 피해 등의 악재로 인해 초유의 외화부족에 직면한 쿠바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50세 이상의 담배보조금 폐지 등 전반적인 배급물량의 감소(배급량으로는 15일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와 이전에도 시행하였다가 폐지한 자영업 허용, 직장배식 폐지 등은 부족한 예산을 때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쿠바 정부가 2010년 들어 표방하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 정책도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가적 위험도가 크며, 관료주의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발표한 골프장(16개) 외국자본 유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외국계 은행들은 평가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커지는 미결제 규모로 인해 경제적 마찰이 커질 것으로 전망(일본의 경우 30억불에 달하는 채무를 뒤로한 채 대다수 기업들이 철수한바 있음)된다. 다만, 최근 니켈가격이 호전되고 있으며, 미국의 쿠바관광 완전 허용 등 관계 개선 시 경제 호전이 예상된다.

6차 쿠바공산당 전당대회 시 논의된 “Economic Guideline”도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좌동결 해소 및 송금자유화 관련 사항 등이 전무하다.

나. 경제 성장

2004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및 베네수엘라 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양국의 금융지원, 대 베네수엘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수출 등이 쿠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 및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계속되고, 원유, 니켈, 관광, 기타 서비스 분야가 호전되며 경제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쿠바의 주요 외화 가득원인 국제 니켈 시세가 하락하고, 관광 수입이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관광수입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이후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 수입품인 쌀 가격의 상승 또한 부족한 외환보유고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외환보유고 감소는 상품수입에 의존하는 쿠바 경제 활동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외환부족으로 인해 대금미결제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기존 쿠바교역에 종사하던 외국인기업의 상당수가 자금압박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30억 불에 해당하는 미결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EIU추정)	2015(EIU추정)
경제성장률	%	2.8	3.0	2.7	1.2	3.5
GDP	US\$억	700	731	771	821	887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4

다. 인플레이션

쿠바의 상품가격은 불태환페소 및 태환페소의 2중구조이다. 농산물 및 정부 보조 일부 생필품은 불태환페소(쿠바페소)로 판매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은 태환페소(CUC)로 판매한다. 2005년 말 쿠바 정부는 전 업종에 걸쳐 임금인상을 하였으나, 급여 인상분만큼 전기 요금이 인상되어 급여인상 효과가 상쇄되었다.

불태환페소로 저가 공급되는 배급 생필품의 수량 및 종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생필품의 태환페소 구입 부담이 증가하여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급여(불태환 페소) 및 실질 생활비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쿠바의 지하경제 규모는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며, 정부배급이 최저 생계의 1/2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쿠바정부의 통제경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쿠바의 지속적 채무불이행 인해 친쿠바 국가인 베트남, 중국 등으로부터의 추가 납품 거부 등으로 인해 쌀 가격 등 생필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상승률	%	2.8	3.0	2.7	1.2	3.5

주*: EIU 추정치,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4

라. 실업

관광 등 정부역점산업부문이 유희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건설, 교육, 농업 부문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농촌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고등학교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고등학생 인력을 농업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 책정 공식 급여가 월 15~30달러 수준으로 기본생활 영위가 불가하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00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어 사회 전 부문에서 공식 직업활동 보다는 비공식(불법)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업률	%	3.2	3.5	3.3	3.6	3.9

주*: 추정치,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4

3. 주요 산업동향

가. 관광/교육/서비스 - 관광업

관광산업 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주요 외화 가득 산업이다. 1990년대 초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 이후 관광객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객 유치 국가는 캐나다 및 EU이다.

한국 관광객은 2005년까지 연간 3,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6년 이후 국내언론의 쿠바취재 영향으로 연간 4,5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관광객수도 3,000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12년에는 4천5백명 수준을 회복하였다.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사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쿠바의 관광산업은 점차 회복세로 반전한 것으로 쿠바정부는 발표하였다.

쿠바의 연도별 관광객 유치 현황

(단위: 천명, U\$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광객수	1,775	1,686	1,906	2,049	2,319	2,221	2,152	2,348	2,430	2,32
관광수입	1,840	1,769	1,999	2,237	n/a	n/a	2,236	2,359	2,106	2,218

주: 2010년이 공식 발표 최근 자료, 각 년도 12월말 기준

자료원: 쿠바 통계청, 쿠바 관광부

관광객 유치 주요 대상국

(단위: 천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캐나다	452	563	602	604	660	818	914	945
영국	121	161	199	211	208	193	172	174
이탈리아	177	179	169	144	134	126	118	112
스페인	128	146	194	185	133	121	129	104
독일	158	144	125	114	103	100	93	93

주: 국가별 관광객 수는 2012년이 공식 발표 최근 자료

자료원: 쿠바 통계청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가득원이기 때문에 쿠바의 관광산업은 관광부와 더불어 핵심 권력기관인 인민 무력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영기업들이 호텔, 렌트카 등 관광관련 전 업종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04년 부정부패 방지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관광업 국영기업을 축소 조정한 바 있다.

관광관련 공식 종사자수는 1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나, 비공식 종사자수가 더 많으며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접촉을 통해 공식 급여보다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업 종사가 인기 직종이다.

유적지관광이나 환경 친화적 관광, 해양스포츠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춘 관광상품들도 개발되고 있으나 해변관광이 관광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쿠바 제1의 관광지는 아바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바라데로(Varadero)이며 최근 들어서 쿠바 중앙부는 Cayo Santa Maria와 Cayo Coco 등도 적극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 쿠바 제재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4월 미국 거주 쿠바인의 쿠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종전 3년에 1회 방문을 완전 해제). 이에 따라 통계상 미국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 정부는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완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미국 거주 쿠바인이 아닌 미국인에 대해서도 연간 2천불의 송금을 허용하였고 해외 친인척 송금은 악화된 쿠바경제가 숨통을 트는데 일조하고 있어 송금완화 및 허용 쿠바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광물/에너지 - 니켈 및 코발트

니켈과 코발트가 쿠바 최대의 자원이며, 쿠바는 세계 6위의 니켈 생산국이다. 쿠바 내 외국인 투자 중 대규모 투자는 니켈 채굴에 집중되어 있으며, 니켈은 쿠바의 제1위 수출품목이다. 2008년 기준 니켈 확인 매장량은 560만 톤(세계 3위), 추정 매장량은 2,300만 톤(세계 2위)이며 코발트 확인 매장량은 100만 톤(세계 3위), 추정 매장량은 180만 톤(세계 3위)이다.

2004년 말 중국 Minmetals와 니켈/철 합금강(Ferroniquel)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소련 체제 붕괴로 건설이 중단된 라스 까마리오가스(Las Camariocas)제련소를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총 투자액은 5억 달러 규모이다. 25년간 연간 22,500톤의 니켈/철 합금강 생산을 계획하며 쿠바 지분 51%, 중국 지분 49%이다.

쿠바 중부 까마구에이(Camagüey)지역의 San Felipe 니켈광산 개발을 위해 중국과의 합작투자가 검토 중이다. 개발 시 연간 5만 톤의 니켈 채굴이 예상된다. 소요액은 U\$13억이며, 중국측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캐나다 Sheritt International과 쿠바 Cubaniquel은 기존 합작투자법인 Pedro Soto Alba Moa Niquel S.A.에 각각 50%씩 총 4억5,0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신규 투자 완료 시 니켈 및 코발트 연간 생산량은 49,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Sheritt International의 투자로 인해 니켈 생산량은 1994년 26,900톤에서 지속 증가하여 2000년 이후부터 연간 7- 8만톤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니켈시세 상승에 따라 니켈 수출에 따른 수익은 2002년 4억3천만 달러에서 2007년 기준 23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니켈 수출은 쿠바의 상품 수출에서 60%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국제 니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쿠바 정부는 관련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쿠바의 연도별 니켈 생산 추이

(단위: 톤)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75,641	71,708	72,968	70,400	70,100	69,700

자료원: 쿠바 통계청 2012 발표 자료(최근 자료)

쿠바는 1994. 12. 21. 광산업법을 제정하여, 광산업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광산과 광물자원의 소유는 국가가 보유하며, 광물탐사권의 시효는 3년이고 기간 만료 시 2년간 갱신 가능하다. 광물채취권이나 제련 등을 통한 생산권은 20년간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20년간 연장 가능하다. 채광활동은 기초산업부(MINBAS) 산하 광물자원국이 감시하고 있다.

다. 광물/에너지 - 원유 및 천연가스

구 소련체제 붕괴 이후 원유의 안정적 공급 및 원유수입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따라서 국내 원유 및 가스 생산은 1991년 500,000톤에서 2004년 4백만톤(8만 배럴/일)으로 증가하였다.

쿠바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단위: MT, 백만m³)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원유	3,628	3,680	3,253	2,935	2,900	2,905	3,003	2,731	3,051
천연가스	585	658	704	743	1,091	1,218	1,161	1,155	1,072

자료원: 쿠바 통계청 2012년 발표 자료(최근 자료)

원유 및 가스 생산은 1990년대 초반부터 2개 캐나다 회사(Sheritt International, Pebercan)가 주도하였으며, 시추 및 생산에 투입된 외국자본은 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의 Sinopec이 유전탐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 채굴 중이다.

2007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80,000배럴/일로, 국내 수요량의 50%를 충당한다. 2005년부터 우방국인 베네수엘라가 일 100,000배럴을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있으며, 쿠바는 초과 공급량 일부를 재수출하고 있다.

캐나다 Sheritt International은 쿠바 내 90개 유전에서 쿠바 연간 원유생산량의 40%를 채굴 중이다. 한편 캐나다 Perbecan은 2005년 쿠바 중서부 마탄사스 (Matanzas) 지역의 해안에서 경제성이 높은 유전을 발견하였다.

멕시코만 쿠바 영해 지역에 매장된 46억 배럴의 원유, 9조8,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개발에 외국자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Repsol이 2004년 1차 시추에 이어 2008년 2차 시추 계획이며, 중국(CNOOC), 노르웨이(Norsk Hydro), 인도(ONGC) 등이 탐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미국기업들도 탐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정부의 대 쿠바 경제제재에 따라 답보 상태이다.

2006년 4월 쿠바 Cupet(지분 51%)과 베네수엘라 PVDSA(지분 49%)가 합작 법인 PVD-Cupet 설립하였으며, 쿠바 중부 시엔푸에고스(Cienfuegos) 소재 정유 공장을 재가동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PVDSA는 동정유공장에 원유는 물론 공장가동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쿠바의 주요 정유시설은 씨엔푸에고스(일 정유능력 65,000 배럴), 아바나(일 정유능력 121,000 배럴), 산티아고 데 쿠바(일 정유능력 101,000 배럴) 등 3개 지역에 소재하며, 동 시설들의 현대화 및 증설을 위해 베네수엘라-쿠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 의료바이오 - 생명공학 및 의약품

쿠바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BT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했으며, '90년대 초 동구권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 시에도 의약품 수출 확대 및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BT 산업에 대한 쿠바 정부의 투자를 지속했다.

쿠바의 BT산업은 1981년 생물학 연구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Biológicas)가 설립된 이후 발전하였다. 동 연구센터는 인터페론을 생산한다. 이후 아바나 생명공학 연구단지 (Polo Científicos del Oeste de La Habana)가 조성되었으며, 이 연구단지에는 50여 개의 BT관련 연구소 및 생산시설이 모여 있다.

유사한 연구단지가 아바나외 쿠바 주요 6개 도시(Villa Clara, Sancti Spiritus, Ciego de Avila, Camagüey, Holguín, Santiago de Cuba)에 조성되었다. BT산업 투자액은 최근 15년간 15억 달러, 관련 종사자는 약 20,000명에 달한다.

쿠바는 BT산업을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국,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 15종의 의약품을 수출 하고 있으며, 연간 의약품 수출액은 2008년 기준 약 3억 달러이며 제2위 수출품목이다.

마. 전기/전자 - 전력

전력생산의 86%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 부담의 최대 요인이다. 12%는 유전 부산물 가스, 나머지는 디젤, 사탕수수 추출 바이오연료, 태양열, 수력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2010년 전력생산량은 17,395 gwh이다.

쿠바의 연도별 전력생산량

(단위: GWH)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생산량	15,634	15,341	16,468	17,622	17,681	17,727	17,395

자료원: 쿠바 통계청 2010년 자료원

쿠바 정부는 연간 23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수입비용 절감 및 단전 방지 등을 위해 2005년부터 발전 및 송전 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을 '에너지 혁명의 해'로 천명하여 전력생산 극대화, 안정적 전력공급, 절전 등을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노후화된 대형 발전 및 송배전 설비, 허리케인으로 인한 잦은 정전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의 소규모화 및 지역화를 구상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2005년~2007년 4차에 걸쳐 현대중공업 디젤 발전기(이동식 발전시스템, PPS; Package Power Plant) 총 644대 8억7,000만 달러를 도입계약 체결하였으며, 2010년말까지 전국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1차 계약(2005.9.): 244대(3억3,000만 달러)
 2차 계약(2005.11.): 100대(1억3,000만 달러)
 3차 계약(2006.5.): 200대(2억9,000만 달러)

쿠바의 유형별 발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5년	2007년	2010년(계획)
Thermal	80	63	22
Gas	9	15	23
GE Fuel	-	8	51
GE Diesel	-	13	3
기타	11	1	1

자료원: 쿠바 기초 산업부(MINBAS) 세미나 자료원(2008.11.)

현재중공업의 발전기 도입으로 쿠바의 전력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과 전력케이블로 인해 전력누수가 심한 상태로 쿠바정부는 2010년 2월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과 전력케이블 교체를 선언하였으나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IT - 통신

1994년 쿠바 EMTTEL과 멕시코 Domos(이후 이탈리아 Telecom Italia로 대체) 합작으로 유선통신회사 Etecsa를 설립하였다. 2005년 말 80만 회선으로 1천명당 70회선에 불과하여 여타 중남미 국가의 평균치의 50% 수준이었다. 2006년에 112만 회선, 1천명당 100 회선으로 증가했다.

쿠바의 이동통신은 Cubacel이 독점하고 있다. 2008년 3월 쿠바인의 이동통신 가입을 전면 허용하여 사용자는 증가 추세이다. 2006년 10만명에서 2008년말 33만명, 2012년 160만명이 예상된다. 가입료는 2008년 3월 111cuc(10cuc 카드 포함)에서 12월말 60cuc (10cuc 카드 포함)로 인하되었다.

PC는 쿠바 정부의 민간판매 통제 품목이었고 2006년말 기준 쿠바의 PC대수는 65만대로 인구 1천명당 58대에 불과하였다. 2008년 3월 민간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판매회사CIMEX 에 따르면 2008년에 대당 600cuc(약 U\$750)의 중국산 PC가 10만대 판매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www(world wide web)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일부 개인 등에게만 www 접근 허용되며 2004년 기준 www 이용가능자수는 143,000명으로 1,000명당 13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의 엠바고 조치 때문에 쿠바-미국 플로리다간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여 위성 인터넷을 사용 중이다. 비용 및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쿠바 동부와 베네수엘라 북부를 연결하는 1,552 km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협정이 2007년 1월 양국간에 체결되었다.

양국간 합작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09년 설치 완료 예정이었으나 2009년 8월 말 기준 아직 합작 회사도 설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1년 이후에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 농림수산물 - 농업

여타 농업 분야 중 국내 소비용 과일 및 야채는 1994년 자유 농산물시장(Mercado Agrop ecuario)이 도입된 후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쌀, 콩, 밀 등 일부 주요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쌀은 중국, 베트남, 밀은 프랑스, 감자는 캐나다 및 네덜란드에서 수입한다.

미국이 농산물 및 의약품에 대한 대 쿠바 금수조치를 2000년 완화한 이후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입 농산물은 대두 분말,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등이다.

쿠바의 대 미국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U\$백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물량	28	832	1,273	1,644	1,816	1,200	1,500
금액	4	176	344	474	541	340	500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년 이후는 공식 발표 없음

자료원: 쿠바 ALIMPORT 2007년 발표

4.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요

쿠바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나 현재 ALADI(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회원국으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는 상호特惠관세를 주고 있다. ALADI는 1981년 유럽연합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기구로서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쿠바는 이중 베네수엘라와 가장 큰 교역량을 보이고 있다.

나. 카리브해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쿠바는 카리브해 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의 회원국으로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33개 국가와 사회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수지

제조업 취약 및 광산물, 농산물에 국한된 수출상품 제약으로 상품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이다. 상품수입에 필요한 외화는 서비스 수출(의사 및 교사) 73억 달러, 해외 친척 송금, 관광수입 등으로 보전하고 있다. The Havana Consulting Group(THCG)에서 발표한 자료원에 의하면 해외친척송금이 2012년의 경우 26억 달러에 달했으며 해외에서 쿠바로 물품을 보낸 것이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 U\$백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6,170	5,900	5,566*	5,537	6,294
수입	14,019	13,869	14,773*	14,985	15,315
무역수지	-7,850	-7,970	-9,207*	-9,448	-9,021

주*: 추정치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4

나. 수출입 상품

수출상품

1차 상품이 주요 수출 상품이다. 니켈을 비롯한 광업제품이 1위 수출 품목으로 2008년 기준 22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59%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의약품이 3억 2,000만 달러(8.2% 비중), 담배제품이 2억 2,000만 달러(6.1% 비중) 이다. 쿠바 정부의 역점분야인 생명공학(BT) 관련 수출 비중이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수출은 2005년 2억 4,000만 달러(11.1% 비중), 2006년 3억 달러(10.5% 비중), 2007년 2억 9,000만 달러(7.8% 비중)으로 변화했다.

쿠바의 주요 수출상품

(단위: USD, 백만)

SITC	상품명	2004	2005	2006	2007
28	금속성 광석 및 금속성 부스러기	1,106	1,035	1,404	2,153
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165	240	306	289
12	담배 및 담배제품	217	225	246	236
06	설탕, 설탕조제품 및 벌꿀	281	154	222	201
87	기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21	42	95	91
03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88	72	64	81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5	45	49	73
67	철 및 강	36	44	43	58
11	음료	27	25	26	53
66	기타 비금속광물	33	42	40	44

SITC	상품명	2004	2005	2006	2007
89	기타 잡제품	116	53	29	33
05	채소 및 과일	79	39	29	32
72	특수산업용 기계	6	11	31	31
71	원동기기 및 설비	5	6	16	31
총 수출액		2,332	2,159	2,924	3,701

자료원: 쿠바 통계청 2008년 자료원(입수 가능 최신 자료원)

수입 상품

쿠바의 주요 수입상품

(단위: USD, 백만)

SITC	상품명	2003	2004	2005	2006
3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 물질	996	1,310	1,945	2,284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93	258	461	1,052
71	원동기기 및 설비	77	101	326	709
04	곡식 및 곡식가공품	348	449	546	492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236	278	324	427
69	기타 금속제품	142	153	219	308
78	도로주행 차량	163	197	267	292
87	가구 및 부분품	72	107	200	288
72	특수산업용 기계	99	90	160	229
01	고기 및 고기조제품	130	187	202	228
89	기타 잡제품	158	188	198	209
67	철 및 강	82	109	188	186
02	낙농품 및 새알	113	127	181	166
76	통신 및 녹음기기	144	140	97	157
05	채소 및 과일	120	127	134	130
66	기타 비금속광물	92	104	105	124
59	기타 화학물질 및 제품	80	99	103	119
84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104	85	95	114
64	종이, 판지 및 펄프	97	99	100	113
62	기타 고무제품	63	69	90	106
85	신발	80	68	87	101
총 수입액		4,613	5,562	7,533	9,420

자료원: 쿠바 통계청 2008년 자료원(입수가능 최신 자료원)

최대 수입상품은 원유 및 관련 제품으로 2007년 기준 U\$24억 수입해 총 수입의 23.7% 점유했다. 대 쿠바 원유 최대 수출국은 베네수엘라이다. 2006년과 2007년에 전기 기기류의 수입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쿠바의 최대 국책 사업인 '에너지 혁명'의 일환으로 가정용 냉장고 및 에어컨이 일시적으로 대량 수입됐기 때문이다. 발전기 수입 증가에 힘입어 원동기기류 수입은 2006년에 7억 달러, 2007년에 5억 달러로 제4위 수입품목이다. (당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이동식 발전기를 대량으로 수출한 바 있다.) 농업 분야 낙후

로 인해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이다. 곡식류(쌀, 밀, 옥수수 등), 고기 및 고기 조제품(닭고기), 낙농품(분유) 등도 주요 수입품목이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쿠바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입 통계는 정치적 미수교 및 여타 대외 관계로 인해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5년 9월 아바나무역관 개설을 계기로 2005년 통계부터 공식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은 2005년까지 4,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6년 2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증가 하였으며, 2007년에도 2억 1,000만 달러, 2008년 3억 4,000만 달러로 급증한 바 있으나 2010년 6,3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조금 증가하여 7억 4,000달러를 기록했지만 2012~2014년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2012년 7,378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 가까이 줄어들어, 2013년에는 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1~11월까지 한국의 대쿠바 수출은 5,100만 달러수준이다.

2006년부터 대 쿠바 수출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쿠바정부 정책 품목인 발전기(현대중공업), 에어컨 및 냉장고(LG전자)등의 대형 수출이 있었기 때문이며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쿠바의 9대 수입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09년 현대중공업 발전기 납품이 대부분 종료되어 2009년 이후 쿠바 수출액은 감소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쿠바의 사례를 발판으로 ALBA국가 등 쿠바와 유대관계가 깊은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 대 쿠바 시장 진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수입은 전통적으로 담배류, 금속 스크랩 등이었으나(40위권) 2011년에는 한시적으로 나프타가 대량으로 수입된 바 있다. 2011년에 한국의 대쿠바 수입은 2,977만 달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0.1%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12년은 전년대비 -92.7%의 하락세를 보이며 수입이 감소되다 2013년 349.9%의 증가율을 보이며 973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쿠바 수출은 약 5,108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2.8%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014년 1월~11월간 한국의 대쿠바 수입은 6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對)쿠바 수출입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쿠바 수출	62,737	73,980	74,203	57,839	55,819
대쿠바 수입	8,754	29,769	2,172	9,730	12,172
무역수지	53,983	44,211	72,031	48,109	43,647

자료원: KITA

나. 대 쿠바 주요 수출 품목

쿠바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에너지 혁명 정책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2007년 2월 기간 중 현대중공업이 총 644대 8억 달러의 디젤 발전기를 수주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 쿠바 수출이 시작되었다.

8408, 8409, 8501, 8502, 8503, 8537 등이 현대중공업 발전기 설치 관련 제품으로 2006년~2008년 3년간 수주물량 대부분이 쿠바에 수출되었다. 2009년 상반기부터는 A/S를 위한 HS 8409 발전기용 부품품이 대 쿠바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도에는 선박용 압축점화식 엔진이 23,338.7%의 성장률을 보이며 1,335만 9,000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2014년에 선박용 압축점화식 엔진은 1,302만 달러 수준으로 수출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현대 및 기아 자동차가 10여년 전부터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쿠바로 수출되고 있다.

승용차는 외국인 관광객용 렌트카 용도로 1,500cc 소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 소나타가 소량 들어오고 있다. 2005년 1천 1백만 달러에서 2006년 786만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 1천 6백만 달러, 2008년 1천750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9년 상반기 중 2008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연간 1천만 달러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수입은 쿠바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수입물량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0인 이상 수송용 버스는 2005년 35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 하였다가 2006년 140만 달러, 2007년 18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쿠바와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중국산 Yutong 버스로 수입선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쿠바 정책 변경에 따라 2005년 수준인 330만 달러로 회복했다. 2009년 상반기에도 2008년 동기대비 유사한 수출실적을 기록 중이며, 2009년 연간 수출 호조세 지속이 예상된다.

화물자동차는 2006년 97만 달러에서 2007년 398만 달러, 2008년 450만 달러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09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9년 연간 4백만 달러 수준 유지가 예상된다.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과 연동되어 자동차 부품 수출도 2008 까지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6년 수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897만 달러, 2007년에는 59.4% 증가한 1천 430만 달러이다. 2008년에는 28.7% 증가한 1천 841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상반기 중 수출액이 급감한 이유는 쿠바 국영기업들의 수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라 신규 수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현대차 에이전트 Tokmakjian사의 영업정지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으나 2012년의 경우 삼성자동차와 기아차가 현대차의 공백을 메꾸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새로이 임명된 현대차 에이전트인 Suanville사의 활약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경우 우리나라 기아자동차가 쿠바 신차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한바 있다.

타이어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가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금호/한국 2개 브랜드만 진출하였으나 2008년에 넥센 브랜드가 신규 진출하였다.

쿠바 내 인지도가 높아 매년 5백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전년대비 45.3% 감소한 25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에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660만 달러로 회복했다. 2009년 상반기 중 수출액 감소 이유는 쿠바 국영기업들의 수입대금 지연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신규 수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Tokmakjian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우리 기업은 한국타이어로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넥센타이어 또한 에이전트인 암펠로스 퇴출로 인한 쿠바진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쿠바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MTI CODE	품목	2013	2014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13,359	13,025
7411	승용차	6,773	8,647
7420	자동차부품	14,345	5,928
7111	원동기	5,756	4,703
4213	면사	1,425	4,503
2262	의약품	645	2,808
7216	화학기계	210	2,404
4351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2,582	1,699
8230	냉장고	1,203	1,557
7451	엘리베이터	130	1,292
4112	아크릴섬유	409	1,258
7332	의료용기기부품	44	1,249
7112	펌프	943	654
7515	전동축및기어	178	578
7251	건설중장비	881	471
9110	서적	71	468
7901	기타기계류	2	429
3203	타이어	516	403
7412	화물자동차	2,827	36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74	352
총계		57,839	55,819

주 1: MIT 4단위 기준

주 2: 총계는 전체 누적

자료원: KITA

대 쿠바 주요 수입품목

설탕, 알루미늄 및 동의 웨이스트, 시가 등이 전통적인 대쿠바 수입 상이다. 한편 2013~2014년 통계자료원에 따르면 주류가 292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2007년 SEOUL FOOD 전시회에 쿠바 기업 4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바닷가재, 천연꿀, 커피, 맥주 등이 대 한국 수출관심품목 4개 품목 중 커피가 2009년 상반기 5만 달러 수출되었다.

럼의 경우 쿠바 대표 브랜드인 Habana Club을 프랑스로 에이전트인 Pernod Ricard사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 중이나 매출이 미미한 상황이다. 커피는 우리나라에 Cristal Mountain이라는 프리미엄 커피가 소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나 물량 부족 및 우리나라 내에서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량 수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은행에서 쿠바 LC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에서 쿠바로부터 수입을 위해서는 선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서울 식품전에 CARIBEX(수산물 수출 공기업), CORALSA(식품 취급 공기업), CEPEC(무역투자진흥기관) 등 쿠바 정부기관 3개사가 성공리에 참가한바 향후 쿠바 식품류의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증가할지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

2014년 12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스크랩은 27.5% 감소하여 117만 9,000달러를 기록했고, 설탕도 전년대비 -47.9%로 56만 7,000달러를 기록했다. 잎담배 또한 전년대비 66.5% 감소해 106만 7,000달러 수준이다.

반면 맥주를 제외한 주류의 수입이 늘었다. 전년대비 176.2% 증가해 806만 6,000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쿠바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MTI CODE	품목	2013	2014
0157	주류	2920	806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626	1179
0154	연초류	3188	1067
0158	당류	1089	567
0151	커피류	149	51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389	405
0469	기타수산물가공품	0	240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15	90
2262	의약품	15	27
8499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0	6
총계		9,730	12,172

주 1: MIT 4단위 기준

주 2: 총계는 전체 누적

자료원: KITA

3. 수입규제제도

쿠바는 마약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수입을 쿠바 정부만이 분야별 공기업을 앞세워 가능한데 이들의 경우 외화 부족으로 일반적으

로 1년에서 2년간의 외상거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미지급 사태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중계상 혹은 LC 할인 은행 활용이 필요하다.

4. 관세제도

가. 개요

쿠바는 정부에서 수입을 직접 수행하는 관계로 다른 나라처럼 바이어의 관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www.aduana.co.cu)에서는 2008년에 작성된 최신 관세율 표를 게재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별로 2%에서 45% 수준이다. 몇몇 쿠바정부와 외국합작기업의 경우에도 수입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CUP가 아닌 CUC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쿠바관세법은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교토협정서라고 알려져 있는 <관세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에 언급된 관세규정을 포함한다.

주요관세규정

- 보관(Customs deposit)
- 통과 (Transit)
- 소비를 위한 발송 (Dispatch for consumptions)
- 동일한 조건의 재수출을 위한 임시통관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for re-export in the same conditions)
- 능동적인 상품개선을 위한 임시통관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for active improvement)
- 수동적인 상품개선을 위한 임시통관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for passive improvement)
- 동일한 조건의 상품 재수입을 위한 임시통관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for re-import in the same conditions)
- (Replacement as per franchise)
- (Replacement as per warranty)
- 환적 (Transshipment)

보세창고규정

보세창고규정은 보관자가 상품을 수입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사후 시장에서의 판매가 허가된 업체에 의하여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세법에 의하면 보세창고 운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상품수입업체, 외국 무역상사의 지점 및 에이전트 업체이며 이들은 당연히 쿠바 관세청장이 정한 규정에 의거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보세창고업자는 어느 때라도 보관중인 상품을 처분할 수 있음. 즉, 이에는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재수출, 판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세창고에 있는 상품을 소비를 위해 반출하는 행위는 오직 대외무역업의 허가를 가진 관세

법적체계

- 쿠바의 관세규정은 1990년 법령 124호로 발효되었음.
- 쿠바의 관세규정은 HS코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8 단위의 국가코드를 사용하여 이 코드의 사용으로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쉽게 됨.
- 국가통계청은 2002년 4월 3일 결정번호 108/2002로 쿠바 관세규정을 스페인어판 HS코드(제 3차개정본)에 맞추도록 승인했고 이 결정은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음.
- 쿠바관세법은 1996년 4월 3일에 발표된 법령 162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상업목적 이외의 수입에 대한 관세는 법령 22호 (1979.4.16.) 및 법령 178호 (1997.10.13.)가 적용
- 관세구조: 관세는 다음의 2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관세: WTO 비회원국 및 쿠바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적용
- MFN 관세: WTO 회원국 및 쿠바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며, 현재 대부분 MFN 관세의 수혜를 받고 있음. 일반관세의 평균관세율이 17%인데 MFN 평균관세율은 10.7% 임. 원자재 관세율은 5%, 10%, 15% 임. 전체의 8% 정도가 2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90%는 관세율이 15% 이하 임. 관세는 상품가격에 기준하여 부과
- 원산지 규정: 원산지규정은 1997년에 WTO 원산지 규정협정에 언급된 원칙에 준하여 준비되었으며 재무부 및 대외무역부 등의 결정 4호로 시행 중
-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은 상품의 수출업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인허기관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서임. 쿠바의 인허기관은 쿠바 상공회의소이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상품이 특혜관세 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

나. 관세

쿠바의 관세 규정은 1990년의 Decree-Law No. 124에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S CODE를 기준으로 하며, 쿠바는 8단위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 일반 관세: WTO 멤버가 아닌 나라 및 쿠바와 무역 협정이 없는 나라에 부과되는 관세
- 최혜국 관세: WTO 멤버 및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

최혜국 관세의 평균은 10.7% 정도이며, 일반 관세는 17%를 초과하지 않는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5%, 10%, 15%이다. 전체의 8%만이 20%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며, 90% 이상의 물품은 15% 이하로 나타났다. 관세의 계산은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제이다.

다. 라벨링 규정

기 포장된 농산품은 COEDES STAN 1-1985에 규정되어 있는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라벨에는 제품의 이름, 원산지, 브랜드,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크기, 구성 성분 및 첨가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라벨에는 생산일자, 유효기간 그리고 사용 · 보존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5. 지식재산권

쿠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엠바고를 당하는 입장으로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TV의 경우 미국 영화나 드라마 등의 경우 사전 허가 또는 계약 없이 자유로이 쿠바 방송에 틀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 해적판들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쿠바 극장에 간혹 우리나라 영화가 라이선스 없이 상영되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 법규

쿠바에서의 산업재산권은 등록시스템과 WTO에서 채택된 TRIPS 협정에 따른 일련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쿠바는 그 동안 국제적으로 공언해온 바에 따라 1995년 법령 제160호로 의약품과 농업용 화학제품을 위한 특허신청 제출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1999년에 법령 제 203호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관습적으로 쿠바에는 외국인 당사자들의 이 분야에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이들 에이전트들은 [미주산업재산권협회: ASIPI]나 [국제산업재산권협회: AIPI]의 회원업체들이다. 또한 [국제상표협회:ITA] 의 연례정기회의에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은 www.ocpi.cu 에서 열람할 수 있다.

Bufete LEX S.A.

LEX S.A.는 발명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산업디자인, 상표, 상호, 슬로건, 도메인네임, 보건 등록 등에 관련된 업무에 전문화된 법률사무소이다. 동 회사는 ASIPI의 회원사이다.

LEX S. A.

Calle1ra. Esquina a calle 10, Miramar, La Habana, Cuba

Tel: (53-7)204-9093

Fax:(53-7)204-9533

e-mail: amm@lexsa@lexsa.colombus.cu

http://www.lex_sa.com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Paris Treaty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tockholm Act.

Madrid Arrangement on the Repression of Wrong or Deceitful Indications on the Origin of products

Madrid Arrangement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rademarks

General Inter American Convention of Trademark and Commercial production (Washington Convention)

Nice Arrang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the Registry of Trademarks

Vienna Arrang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of Trademarks

Founding Treaty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Lisbon Agreement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Denomination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y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to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s concerning patents
Strasbourg Arrang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s Classification(IpC)
Cooperation Treaty on patent Matter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Locarno Arrangement that establishe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rawings and Models

6. 통관절차 및 운송

가. 개요

우리나라에서 쿠바로 컨테이너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파나마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에 교역량이 1억불 미만일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통관의 경우 수입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드무나 장비고장 등 물리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나. 수입통관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선하증권
상업송장
품질 · 순도(purity)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수입/수출이 금지된 품목

약품
폭발물
포르노 물품, 사진, 책자 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물품
쿠바의 보안 및 국내 질서에 반하는 모든 물품 (책자 포함)
동물, 식물 및 이들의 부분품 (CITES 협정의 부록 1에 있는 품목)

7. 시장특성

가. 대금결제 유의

국영기업의 수입대금결제로는 Usance L/C 및 D/A결제 조건이 일반화되어 있고, 통상 360~72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2009년부터 기일이 되었음에도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인해 미결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직거래보다 자금력이 있는 캐나다, EU, 파나마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에 따라 수입단가도 상승한다.

쿠바정부는 외화부족 심화로 2009년 7월 전체 외국인회사의 쿠바 내 구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외화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라는 것이 중론이다.

쿠바에서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Capacidad de Liquidez"라는 정부 공식 문서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많은 외국회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경우 미결 채권이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JETRO 소장 Mr.Fukuda)

쿠바정부는 외화조달을 위해 2010. 5. 1.부터 전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 대상 의무 의료보험료 부과하는 조치도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나. 중남미 최고의 바이오 산업 거점

쿠바는 중남미 최고의 의약품 및 바이오산업 발달 국가로 백신, 암 치료, 안과 치료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약품 개발 능력과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구 분	쿠바	미국	칠레	과테말라	아이티
평균수명(2001년, 세)	77	77	78	67	52
영아사망률(2003년, 1000명당, %)	6	7	8	35	76
의사(1990-2004년, 10만 명당, 명)	591	549	109	90	25

자료원: EIU Country Profile

다. 소비지향적 사회

쿠바는 1959년 이래 오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1898년 독립부터 1959년 혁명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쿠바 경제, 사회를 지배했던 뿌리깊은 미국의 영향으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소비지향적 사회이다.

혁명 시 부유층 망명, 1990년대 경제 위기로 인한 탈출 등으로 다수 쿠바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동시에 활발한 교류를 보이고 있어 미국 문화의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라. 정부(국영기업) 독점

쿠바 국영기업에게만 도소매권, 수입권을 부여한다. 외국기업은 중개역할에 국한된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도 일부 국영기업에게만 허용한다.

자영업은 식당, 이·미용업, 외국인 상대 민박 등 극히 제한적인 업종에만 허용하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국영기업(국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 은행, 통신, 주택임차, 호텔 운영 등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분야 전체가 쿠바 국영기업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

마. 이중가격구조

전기, 전화, 기초생활품은 쿠바페소(CUP)로 저가 공급되는 반면, 주요 공산품은 국영 상점에서 태환페소(CUC)로 판매되는 이중 시장구조이다. (환율 1CUC=24CUP)

쿠바에 사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CUP가 아닌 CUC로 주택임차, 전기세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체감 물가가 일반 선진국 이상으로 비싼 상황이며 외국인들의 경우 CUP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바. 부정부패와 지하경제 확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월급(U\$15~40)으로는 기본생활 영위가 힘들어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직원들의 뇌물수수, 국민의 공공물자 절취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취 물품 암거래가 성행하고, 지하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사.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

구 소련시절, 대부분의 공산품을 구 소련 및 동구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구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공산품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도 미흡하다.

제조업 취약 및 설비, 기계 노후화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 인맥 활용 비즈니스

쿠바는 각 품목별로 소수의 국영기업 중심으로 수입활동이 이루어지고, 각종 구매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맥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므로 정부 및 국영기업의 인맥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다.

입찰담당자가 지인들에게 메일로 가격을 받고 그 내용을 비공개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처음 진출이 매우 어렵고 부정부패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번 진출에 성공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8. 바이어 발굴

가. 개요

우리나라 출장자가 와서 자체적으로 쿠바 바이어를 발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이나 디렉토리를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고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바나 무역관에 의뢰를 하는 방법이며 무역관에서는 쿠바의 대외무역부 (MINCEX) 또는 쿠바 상공회의소에 적격 바이어 발굴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합작회사들이 200여 개사 존재하고 있다.

9.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개요

쿠바는 바이어가 1곳뿐이다. 바로 정부인데, 효율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별로 수십 개의 공기업들을 두고 분야별 수입을 관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상을 통하더라도 실질적인 바이어는 쿠바 정부가 된다.

쿠바는 내부 정보 교류는 매우 활발하여 한 공기업과의 업무내용이 쿠바 전 공기업들에게 공지된다. 즉, 실수를 하거나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이 급속히 쿠바 전역에 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쿠바는 바이어가 월 30달러의 급여도 못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관료주의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상황이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거래선을 바꿀 생각도 없고 새로운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적다.

효과적으로 쿠바 수입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맥은 필수이며 쿠바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고 기분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수입대금 지불의 경우 개인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돈이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지급을 하고 외화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지급을 못한다고 떳떳하게 말한다. 중남미 여타 나라들처럼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경향은 낮으나 워낙 외화가 부족하다 보니 기다리다 속이 타는 경우가 많다. 수년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대금여유가 생겨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10.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아바나국제박람회 (Feria INternacional de La Habana) * 쿠바 최대 무역박람회

기간 2013.11.3.-11.9.

주최: 쿠바 대외무역부, 상공회의소

장소: 아바나 외곽 EXPOCUBA 전시장

홈페이지: www.feriahavana.com

국제도서전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기간: 2013.2.14.-2.24.

주최: 문화부 산하의 쿠바 도서협회

장소: 아바나 내의 Morro, Cabana

홈페이지: www.camaradelibro.cult.cu

국제 정보통신전시회(Feria Internacional de Informatica)

기간: 2013.3.18.-3.22.

주최: 쿠바 정보통신부

장소: 아바나 내의 PABEXPO 전시장

홈페이지: www.informaticahabana.cu

국제 관광 전시회(Feria Internacional de Turismo)

기간: 2013.5.7.-5.10.

주최: 쿠바 관광부

장소: 바라데로(매년 개최지역 변경)

홈페이지: www.fitcuba.com

Feria Internacional de Artesania

기간: 2013.12.7.-12.23.

주최: 쿠바 문화부산하의 Fondo Cubano de Bienes Culturales

장소: 아바나 내의 PABEXPO 전시장

홈페이지: www.fiard.cult.cu

11.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개요

쿠바 내 유일한 기관인 KOTRA 아바나 무역관이 개설되기 위해서 약 10년간 쿠바가 자존심을 걸고 추진하는 아바나국박에 멕시코로부터 참여를 하는 등 현지 인맥을 쌓고 KOTRA가 어떤 기관인지 현지에 계속적으로 각인시켰다. 미국과의 적대 관계로 인하여 쿠바로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쿠바 정부가 수년간 지켜본 뒤에 허가를 내주는 만큼 오랜 투자기간을 놓고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쿠바를 방문하였고 아바나 무역관을 방문하여 진출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쿠바의 까다로운 조건을 듣고 전부 포기하였다. 그러나 아직 쿠바에 우리기업이 전무한 만큼 일단 진출에 성공하면 사업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쿠바진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의 독점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경쟁이 없다.

12. 수출 시 애로사항

우리의 대 쿠바 수출을 가로막는 방해요소로서 가장 큰 것이 정보부족이다. 미 엠바고를 내세워 수출자들을 미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입찰정보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쿠바에 있는 외국인 지사

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낙찰된다 하더라도 1년에서 2년간의 외상거래 또한 우리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쿠바 LC를 받아주는 은행이 없다. 이러한 관계로 쿠바 정부에서는 선적 전에 100%의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쿠바와의 첫 거래에서 100% 선금 지급을 하지 않는 관계로 거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3년간 50만 달러의 실적이 필요로 하는데 지사가 없이 그만큼 실적을 꾸준히 내기가 어려우며 호텔이나 공장, 식당 등의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인이 쿠바인이 되거나 쿠바 정부가 지분을 51% 소유해야 하는 관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쿠바에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외국기업들의 경우 쿠바 비즈니스 노하우를 쌓아서 현지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전략적인 물류기지

쿠바는 식민지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카리브 최대 시장이자 전략적인 물류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다시 과거의 대미시장 진출을 위한 요충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180km, 멕시코 칸쿤에서 210km 거리에 위치하여 미국, 중 남미 주요국과 근접해 있다.

특히 2013년 9월 마리엘항의 자유무역지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마리엘 특구는 파나마 운하 확장과 더불어 북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허브로 활용이 가능하다. 마리엘 특구는 자체 컨테이너항 이외에도 아바나-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쿠바의 서남부 도시)고속도로, 아바나-마리엘을 연결하는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교통 인프라, 항공 인프라(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도 보유하고 있어 쿠바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마리엘 특구는 현재 1단계 개발을 마치고 부두길이 700미터, 1백만 TEU 규모의 컨테이너 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개발이 끝나는 2022년에는 2.1km의 부두에 3백만 TEU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 중남미 최고의 BT산업 거점

쿠바는 중남미 최고의 의약품 및 바이오산업 발달 국가로 백신, 암 치료, 안과치료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약품 개발수준 및 의료가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쿠바와 합작투자 및 R&D 계약을 체결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기술협력도 유망하다. 쿠바에서 생산된 의료·바이오 제품은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13~2017년에는 약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높은 교육 수준 및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모든 국민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의 90%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 문맹률이 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빈부격차가 크고 교육수준이 낮은 다른 중미, 카리브 국가에 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우수한 노동력 고용이 가능하다.

라. 극도로 높은 투자위험

쿠바정부는 2009년 극심한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내 외국인 구좌 전체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외국기업이 큰 손실을 보았으나, 현재까지도 동결된 외국인 구좌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외국인 구좌 동결로 조달한 외화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라는 것이 현지 외국인 기업들의 중론이며, 2008년 대비 2009년 수입이 37%나 급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좀처럼 외화부족 상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쿠바의 수입액은 '08년 143억불에서 '09년 90억 달러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구좌 동결조치 이후에 쿠바 역외로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Capacidad de Liquidez"라는 정부의 공식문서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있어 과실송금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쿠바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회사의 독자적인 경영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투자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모든 경우에 지분은 쿠바정부가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합작법인 등 외국인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니나, 쿠바 헌법이 규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국유화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국유화 사례가 적지 않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의 경우에는 쿠바와 외국인 투자자 간 상호 합의한 금액을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외화부족으로 인해 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자가 현지에 투자할 경우 지분 51%는 반드시 쿠바 정부가 소유하여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지분에 따른 이익배분을 해주고 있는 관계로 스페인계 멜리아 호텔 등 몇몇 기업은 리조트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개혁개방 전 쿠바를 선점하고 있다.

마. 까다로운 고용계약

쿠바는 고용관련 제도가 매우 까다롭다. 쿠바는 공산주의 통제사회로 모든 고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특히 외국인은 쿠바인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된 쿠바 정부부처의 인력 관리기관만이 고용인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선정에 이르기 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임금지불도 합작회사가 외환으로 인력관리기관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 관리기관은 종업원들에게 불태환 페소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쿠바 인력관리기관이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합작회사가 인력관리기관에 지불하는 임금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 합작회사는 종업원들에게 Gratificacion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쿠바 정부의 인력파견 기관에 지불하는 공식임금 외에 종업원의 근로 인센티브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종업원에게 직접 외화로 별도 임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투자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퇴직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인력관리기관에 외화(USD)로 지급하며, 별도로 쿠바 직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퇴직금 계산 기간은 당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물론 전(前) 직장에서도 근무했던 기간까지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동향

가. 미국의 견제 및 쿠바의 제도적 취약점

미국의 대 쿠바 경제봉쇄정책의 일환으로 1996년 3월 쿠바 자유 및 민주화 연대법 (Helms-Burton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정부가 몰수한 미국 국민들의 재산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개인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 (단, 제소 대상은 이자와 비용,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혁명 이후 몰수 미국 자산에 대한 확인 곤란, 외국기업들의 각종 대 쿠바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법적 견제, 쿠바 측의 외국인 단독투자 불허, 쿠바의 왜곡된 인력 및 임금구조 등 대내외 문제로 인해 대 쿠바 외국인 투자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쿠바 내 구좌 동결조치와 속출하는 대금미결제 사태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쿠바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급작스런 외국인 기업의 구좌동결, 부자유스러운 과실송금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상태에서 말로만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근본적으로 투자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우리 정부는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자고 쿠바 측에 수 차례 제안하고 있으나 쿠바는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보장협정은 무의미하다는 논리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쿠바 정부 내부적으로 한때 우후죽순으로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이후 해당국들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 차원에서 협정체결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바 정부는 2011년 4월로 예정된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의 주요 의제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담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기업의 관심사인 동결된 구좌 및 과실 송금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에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허가하였다가 급작스레 금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정책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나. 대 쿠바 외국인 투자동향

쿠바는 미국의 견제를 우려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02년 11월 쿠바 투자경제부(MINVEC) 장관은 1990년~2001년 기간 외국 기업의 대 쿠바 투자 발표액은 약 54억 달러, 실제 투자이행액은 27억 달러라고 밝혔으나, 세부적인 투자분야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협력 민간단체인 미-쿠바 무역 및 경제위원회(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은 투자이행액 27억 달러에 외국정부 또는 여타 형태의 외국의 금융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 쿠바 연도별 FDI 추이

(단위: US\$ 백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FDI	448	39	n/a	n/a	n/a	n/a

주: 2009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 자료

자료원: 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 2005년

한편 미 국무부는 1990년~1999년 3월 기간 중 대 쿠바 외국인 투자 이행액은 17억 달러이고 통신(6억 5,000만 달러), 광업(3억 5,000만 달러), 관광(2억 달러) 등이 주요 투자분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별 대 쿠바 투자 현황

NO.	국가	투자분야
1	스페인	관광, 상공, 시멘트, 광구개발, 상수도
2	캐나다	니켈광산
3	프랑스	럼주 제조
4	스위스	생수 및 음료
5	이스라엘	부동산
6	베네수엘라	정유시설

주요 투자국은 캐나다(광업), 멕시코 및 이탈리아(통신), 스페인(관광) 등이며, 캐나다의 경우 쿠바 동부 Moa 지역에 대규모 니켈광산에 투자하여 수십 년 간 쿠바와 공동으로 니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스페인 또한 Melia 체인이 쿠바에 호텔 및 리조트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가 진출한 통신은 쿠바 정부의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철수한 상황이다.

2002년 이후 외국인투자 동향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주요 투자분야와 투자국은 광업 분야의 캐나다, 관광 산업의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캐나다는 니켈 및 원유 등 자원개발분야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정치적 우방국인 중국 및 베네수엘라가 자원개발분야의 투자에 적극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바 대외무역부(MINCEX) 자료에 따르면 쿠바와 계약을 체결한 산업별, 국가별 기업 수는 아래와 같다.

- 합작회사 및 국제경제협력계약(총 258개사)
 - 산업별: 에너지 및 광업(55), 관광(44), 건설(21), 경공업(19), 농업(14), 식품(14), 금속(12), 운송(11), 국방(7), 설비산업(6), 기타(55)
 - 국가별: 스페인(77), 캐나다(41), 이탈리아(40), 프랑스(14), 중국(10), 영국(9), 멕시코(7), 파나마(6), 독일(6), 베네수엘라(5), 기타(43)
- 공동생산계약(98개사)
 - 산업별: 금속(22), 경공업(21), 운송(10), 수산업(10), 건설(6), 식품(6), 기타(23)
 - 국가별: 스페인(29), 이탈리아(18), 파나마(18), 멕시코(5), 프랑스(4), 베네수엘라(3), 기타(21)

다. 한국 기업의 투자 동향

현재 쿠바 내 한국투자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5년 설립된 KOTRA 아바나 무역관이 유일한 한국기업 이자 기관이다. 대 쿠바 투자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필히 KOTRA를 통한 사전 조사와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3. 한국기업 투자동향

2000년대 중반까지 (주)대우가 쿠바에 진출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철수하였으며 2개의 교포 기업(암펠로스, 네 네카)이 쿠바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2년말 암펠로스사가 쿠바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최근 한쿠바교류협회가 쿠바 진출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를 쿠바정부로부터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밝힌 한국의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對)쿠바 투자 현황

연도	법인구분	업종	건수	금액(달러)
2005	자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1	0
2014	자사	도매 및 소매업	1	300,000
합계			2	300,000

주: 2015년 4월 확인 기준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신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77)을 대체하는 신외국인투자법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별 주요내용

발효 예정일: 2014. 6. 27. ('14.3.29. 발표)

-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 (의회 통과)

투자 보장, 투자가능분야, 투자 형태, 승인절차, 분쟁해결 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룸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 (각료회의 발표사항)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신설

-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외국인 투자자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외국인 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 기술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 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 인력파견회사와의 관계

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과거에는 규정상으로만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외국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적으로 거부 되곤 했음.

-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승인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60일 이상 소요

- 조세감면 혜택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 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①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②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임금은 파견회사에 태환페소(CUC)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불태환 페소(CUP)로 임금 지급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의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 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 투자가능분야

쿠바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부의 우선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투자 방법

직접투자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투자, 혹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직접투자 사업형태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Joint Venture)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로 회사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활동 분야: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생산

※ 외국인투자자: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내국인투자자: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나. 외국인 투자 형태

합작회사(Empresa Mixta)

○ 특성

쿠바와 외국인 투자자 공동의 새로운 법인 설립

해외에 사무소, 자회사 설립 가능

일반적으로 쿠바가 51%의 지분을 가져 소유권을 주장하며 외국인의 경우 투자금 부담 및 경영 노하우, 기술 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분대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임.

○ 투자보장

원칙적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니나, 쿠바 헌법이 규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유화의 경우에는 쿠바와 외국인 투자자 간 상호 합의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 투자승인 기관

각료회의 집행위원회 또는 각료회의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한 투자 승인 위원회가 승인 주체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각료회의 집행위원회가 승인

- 투자금액인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운송, 통신, 수도, 전력, 공공기관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
- 천연자원 이용을 위한 투자
- 외국정부 지분이 있는 외국회사의 투자
- 쿠바 국방부 또는 내무부 산하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쿠바 측 파트너와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서류를 쿠바 대외무역부(MINCEX)에 제출한다. 이후 각료회의 집행위원회 또는 투자 승인 위원회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MINCEX 서류 접수 후 최종 승인까지는 약 60일정도 소요된다.

○ 은행계좌 개설

쿠바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가능

Banco Nacional de Cuba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소재 은행에 외환 계좌 개설 가능

각료회의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쿠바 불태환 페소(Moneda Nacional no Convertible) 계좌 개설 가능

○ 수출입 권한

자사 생산품을 직접 수출할 수 있으며, 자사 목적을 위한 제품을 직접 수입 가능하다.

○ 고용 및 임금지불

쿠바 국적자 또는 쿠바 영주 외국인만 고용이 가능하다. 단, 이사회 임원 또는 특수한 경우에는 임시 거주 외국인도 고용 가능하다. 합작회사가 소속된 쿠바 정부부처의 인력관리기관이 고용인력을 선정하게 된다. 합작

회사가 외환으로 인력관리기관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관리기관은 종업원들에게 불태환 페소로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 법인 등록 및 운영현황 보고

투자승인 후 30일 이내에 쿠바 상공회의소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쿠바 대외무역투자부(MINCEX)에 운영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경제협력 계약(Contrato de Asociacion Economico Internacional)

○ 특성

신규 법인 설립이 아닌 쿠바 측과 외국인 투자자간 기업경영 영역 계약
자본금 출자가 아닌 공동기금 조성. 쿠바 측과 외국인 투자자간 공동기금 지분 합의
투자보장~등록 및 운영현황 보고까지 위의 합작회사와 내용 동일

제품 공동생산 계약 또는 서비스 지원 계약

(Contrato para la Produccion Cooperada de Bienes o para la Prestacion de Servicios)

쿠바 내수용 또는 수출용 상품 생산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쿠바 측과 외국인 투자자가 계약
외국인 투자자는 먼저 금융, 기술, 원자재, 기자재, 반제품 등을 제공하고 쿠바 측이 제품 판매를 완료한 후에
각종 제공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
공동 출자 또는 공동 기금 조성 없음.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미만 단기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입 권한 없음.

생산 또는 서비스 관리 계약(Contrato de Administracion Productiva y/o Servicios)

수입대체 상품 또는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
외국인 투자자는 생산 공정, 설비 등을 관리해 주고 쿠바 측은 사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불
공동 출자 또는 공동 기금 조성 없음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입 권한 없음

다. 투자 인센티브

쿠바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별도 인센티브는 없고, 건 별로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

라. 투자 유치 관심 분야

관광부(Ministerio de Turismo): 수상공원 및 놀이공원, 골프장, 호텔, 요트 정박 시설

교통부(Ministerio del Transporte): 컨테이너 터미널, 항구 신설

정보통신부(Ministerio de la Informatica y las Comunicaciones): LED 전광판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 신재생에너지, 니켈광산

경공업부(Ministerio de la Industria Ligera): 포장산업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 Extranjera): 마리엘항 내의 산업공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설립

합작법인 설립 요건 및 심사 기준

쿠바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단독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쿠바 측과 합작법인 설립도 케이스별로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이 상이하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미루기도 하며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신청서 제출 기관

쿠바 대외무역투자부(MINCEX)

주소: Calle 22 No.318 e/3ra y 5ta, Miramar, Ciudad de La Habana, Cuba

전화: (53-7)206-1471, 202-3873

팩스: (53-7)204-2105

e-메일: promotor3@mincex.cu

홈페이지: www.cpi- mincex.cu

담당자: Ms. Caridad Martinez

나. 연락사무소 설립

설립요건

본사 등록지 국가에서 최소 5년간 영업한 회사

자본금 최소 5만 달러

쿠바와 최소 3년간 거래 경력이 있고 최근 3년간 쿠바와의 거래액이 매년 50만 달러 이상 (쿠바 정부 필요에 의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음)

설립 승인 후 3년 유효하며 이후 갱신 신청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락사무소 개설 신청 서한

회사 정관 사본(쿠바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쿠바 공증사무소 공증)

연락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쿠바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쿠바 공증사무소 공증)

우리나라에 쿠바 대사관이 없는 관계로 현재 양국 간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주 멕시코 쿠바대사관을 통해서 공증

쿠바와 거래했던 제품 목록(HS CODE 기준) 및 설명
소재국 거래 은행의 신용조회서(설립 신청 전 3개월 이내. 쿠바 은행이 소재국 거래 은행에 직접 신용 조회를 요청)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최근 5년간의 운영 현황 보고서
최근 3년간 거래한 쿠바 회사 리스트, 회사별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쿠바 회사들로부터 확인 레터를 받아야 함)
최근 재무제표(외부 기관 감사 확인을 받아야 함)
소재국 회사등록 증명서(개설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신청서 제출 기관

쿠바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a Republica de Cuba)
주소: Calle 21, esq. a calle A, No. 661, Vedado, Ciudad de La Habana, Cuba
전화: (53-7)830-2646
팩스: (53-7)833-3042
e-메일: juridico@camara.com.cu
홈페이지: www.camaracuba.com
담당자: Mr. Ivan Marichal(Director Juridico)

6. 투자입지여건

가. 개요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에는 중남미에서 취합한 금은보화를 쿠바에 모아두었다가 1년에 한 두번 무적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스페인으로 나를 정도로 쿠바는 유럽과 신대륙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까지도 스페인이 자존심을 걸고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던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의 텃밭으로 수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가 집중되는 곳이었다.

미국의 엠바고로 쿠바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미국에 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은 관계로 현재에는 쿠바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다.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마리엘 항구 내의 산업공단에도 몇몇 브라질 및 중국 기업 이외에는 투자의를 밝힌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향후 개혁개방이 가속도가 붙고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쿠바는 다시 한번 중미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투자 유치 정책 방향

쿠바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연간 7%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쿠바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 증진과 수입대체화를 이룩하고자 하며 외국 자본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통해 전력발전망을 변화시키고 하고 있다(천연자원 채

굴, 공공서비스 제공, 생명공학 개발, 도매업 및 관광 부문은 쿠바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쿠바 시장에서는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인력고용은 국영인력파견회사(Employer entity)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은 고용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 마리엘 발전특구

발전특구 개요 및 위치

마리엘 발전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는 외국인 투자, 기술혁신 및 산업 집중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465.4km² 이다. 싱가포르의 PSA와 쿠바 국방부 산하의 Amacenes Universales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브라질 최대 건설사인 오데브레시(Odebrecht)를 항만 개발자로 선정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달러 규모로 브라질의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차관으로 건설된다. 마리엘 특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180km, 칸쿤에서 210km 거리에 있으며 북미, 중남미, 카리브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마리엘 경제특구 위치



자료원: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http://www.zedmariel.com>)

운영상황

마리엘 특구는 2014년 1월 1단계 개발을 마친 상태로 컨테이너 항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향후 보존지역, 생태공원, 첨단기술 산업단지, 물류지구, 항만, 농식품가공지구, 수산업 발전지구, 기술단지 등으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다.

컨테이너항의 경우 Super-Post-Panamax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으며 현재 1단계에서는 백만 TEU의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3백만 TEU의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 특구에 중국, 스페인, 브라질 등 5개국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사업을 조율 중에 있다.

투자 가능분야 및 담당기관

마리엘 발전특구 사무소(La Oficina de 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에서는 Single Window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 프로젝트 접수 및 신고, 각종 인허가 획득 등을 책임지며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선호하는 투자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신약 개발, 제조업, 물류포장산업,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관광업 및 부동산업, 농업 및 식량 산업, 인프라 분야이며 특히 최첨단 기술, 청정 기술 분야의 투자를 선호한다.

마리엘 경제특구 투자 이점

마리엘 경제 특구 투자이점은 아래와 같다.

-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물류 인프라를 확보
-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한 모든 인허가를 원스탑으로 처리 가능
- 대학과 각종 연구소가 근방에 위치하여 전문영역에서 인정받는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음
- 세금감면 혜택 부여

라.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산업

쿠바정부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허용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11개의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하였다.

투자유치 우선분야 및 적용 원칙

○ 농업 및 임업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는 광범위한 농업 산업프로젝트 진흥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강도 높은 임업경영 실시

담배잎 생산 및 시가 생산은 국가 독점 산업으로 보전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쿠바 정부는 외투기업에 토지사용권을 허용

○ 식량산업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밸류체인 형성을 목표로 하며 랍스터 수획 및 가공 산업은 외국인 투자 불가

○ 설탕산업

기존 설비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함
동시에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도 추진
생산체인 전체를 관할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 예정

○ 제조업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입대체화를 위한 신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철강 기계류, 화학 및 전자 분야 포함

○ 관광업

호텔 신규 건설 및 기존시설물과 관광 인프라 리모델링
골프장 건설 및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
잘 알려진 외국호텔체인과 협력하여 경영과 마케팅을 다양화

○ 운수업

항만시설, 조선소 내 선박건조 및 수리, 선박 계약 및 관리, 운항보험, 예비부품 생산 등

○ 보건

의료서비스 수출 및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 건설업

건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 건설자재 및 관련 부품 생산 증대 추구
인프라 및 산업 기반 건설, 골프 코스 혹은 호텔 등 각종 관광 인프라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에너지 및 광업

광업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및 가공, 화석연료의 탐사 및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상업

재원 확보, 선진 경영기술 도입을 통한 도매사업 발전도모
전략영역 내 외국인 투자는 합작회사 혹은 국제경제제휴계약의 형태로 진행

○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

완제품 생산 및 제네릭 의약품 원재료 생산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생산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투자 허용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

○ 신재생에너지

쿠바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 BOT방식을 통한 IPP 생산 혹은 2) 쿠바 전력조합(UNE, Electirc Union)과의 조인트 벤처로 가능하다. 생산 전력은 UNE에서 전량 구매하여 자체 송배전망을 통해 전송하며 전력 구매 단가는 각 프로젝트별로 경제기술 분야의 사전가능성 조사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으로 산정한다.

쿠바 북동쪽은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적합한 수준의 풍량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통해 600~650MW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희망하고 있다. 쿠바는 주로 육상 풍력 발전을 시행하며 물류 환경으로 인해 1.5MW용량의 발전기를 사용하며, 현재 중국 및 스페인 기업이 쿠바에 각 51MW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 중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이 적합한 투자방법이며 마리엘 특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쿠바 풍력에너지 잠재력 분포 지도(2011)



자료원: 쿠바대외무역부

사탕수수 부산물, 농림축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을 희망하며 2020년까지 400MW의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3,200만 톤의 사탕수수를 가공할 계획이다(현재 1,500만 톤). 현재 고압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저압보일러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석유 및 광업

쿠바는 멕시코 만 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하고 있다. 쿠바는 멕시코 만에 위치한 심해유전을 52개 블록으로 나누어 외국 기업에 탐사를 위해 분양하였으며 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였다(인근해역은 45개 블록으로 분류). 쿠바의 주종 광물은 니켈이며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에 대한 탐사 중이다. 쿠바 정부는 쿠바 중부, Ciego-Camaguey-Tunas 지역, Holguin-Sagua-Baracoa 지역, Sierra Maestra지역에 광물 매장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관광업

관광업은 쿠바의 주요 산업이자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아바나 및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골프 코스 개발, 리조트 및 호텔 추가 건설 등이 주요 추진 프로젝트이다. 호텔은 최소 80~120개의 룸을 보유해야 하며 Trinidad, Ancon and Las Caletas(Sancti Spiritus주), Santa Lucia(Camaguey주), Covarrubias(Las Tunas주), Guardalavaca(Holguin주), Cienfuegos 등이 주요 투자지역이다.

* 2013년 기준, 스페인, 포르투갈, 자메이카, 프랑스, 캐나다 등 17개국의 외국계 호텔 체인과 62개의 호텔 계약 체결(총 31,277룸)

쿠바의 관광산업 현황

- 쿠바 통계청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28만 2734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804명이 늘어난 수치
- 2013년에는 285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으며 약 1/3 가량이 캐나다 국적이며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 순
- 쿠바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쿠바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18억 4백만 달러로 숙박 및 요식업에 집중

7. 노무관리제도

쿠바는 공산주의 통제사회로 모든 고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특히 외국인은 쿠바인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합작 법인, 국제경제협력계약 등 법인 성격의 영업 시에는 모든 노무 관리를 쿠바 측이 전담한다. 아래 사항은 연락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이다.

가. 고용

- 쿠바 무역부 산하 인력운영기관인 ACOREC이 외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인력 파견 총괄
- 외국인은 ACOREC에 필요한 인력 내용을 서한으로 신청하며, ACOREC은 후보자를 신청 회사에 추천
- 외국인은 추천 받은 후보자 중 적격자를 채용 결정하며, ACOREC과 인력파견 계약서를 작성
- 고용예정 쿠바인은 ACOREC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 무역 및 투자 등의 경우 ACOREC을 통해서 직원을 지원받고 관광/호텔의 경우 Cubanacan 혹은 Gaviota로부터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분야에 따라 담당 기관이 정해져 있음.
- 사무실에 외국인 수가 현지인 수보다 많을 수가 없으며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된 직원 수만큼의 차량만을 유지할 수 있음.
- 인력파견회사에 신청하여 실제로 인력을 파견 받을 때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음.

나. 임금

임금 지불 방법

쿠바인 직원에 대한 임금은 ACOREC과 최초 작성한 인력파견 계약서에 기재되며, 매월 외화(USD)로 ACOREC에 직접 지불한다.

ACOREC은 쿠바인 직원에게 쿠바 불태환페소(CUP)로 임금을 지불한다. ACOREC은 외국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의 2% 수준을 불태환페소로 지불하므로 통상 외국기업은 종업원들에게 Gratificacion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금 수준(2010년 12월 기준)

각 직종별로 ACOREC 내부 규정에 따라 최초 작성 인력파견 계약서에 명시한다.

ACOREC에 공식 지급하는 외화 임금 외에 종업원의 근로 인센티브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종업원에게 직접 외화로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외국 연락사무소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쿠바 임금수준(정부납부 공식 임금)

직무	임금(US\$)
마케팅	926
수출입	899
비서	514
컴퓨터 기술자	764
회계	672
운전사	556

자료원: 대외무역투자부 산하 ACOREC, 2013년 3월 현재

다. 퇴직금

ACOREC 공식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을 24일로 나눈 일당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ACOREC에 외화(USD)로 지급한다. 쿠바 직원에게는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

퇴직금 계산 기간은 당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물론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포함

1년 미만 근무 시: 24일분
1-5년 근무 시: 65일분
5-10년 근무 시: 89일분
10년 이상 근무 시: 161일분

라. 노동 조건

노동 시간

ACOREC과의 인력파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
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190.6시간

휴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1년에 30일
휴가기간은 무급

인력파견 계약 해지(해고)

외국회사가 쿠바 직원 해고하는 경우 ACOREC에 서면으로 인력파견 계약 해지를 신청.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ACOREC도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음. 계약 해지 30일전에 외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이 경우 퇴직금 의무 없음.

마.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ACOREC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든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8. 조세제도

가. 법인세

- 합작 회사 및 국제경제협력계약 회사 모두 연간 순익에 대해 30%
- 쿠바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50%까지 부과할 수 있음.
- 개인운영식당(Paladar)의 경우 매출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탈세하는 경향이 높음.

나. 개인소득세

쿠바 종업원에게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개인소득세 부과 제도가 없다.

다. 부가가치세

쿠바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무역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관광사업 등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요

쿠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서 항상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외화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일반인들의 경우 외국으로의 송금이 규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시에도 1인당 5천불 이상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쿠바로의 친인척 송금 수단이 되고 있는 Western Union의 경우에도 쿠바에서 외부로 송금은 금지되고 있다.

수입억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친인척 송금 및 관광산업 그리고 의사 등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부 허가 받은 국영 기업들로서 금액에 따라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

V. 비즈니스 참고정보

1. 물가정보

(단위: 1 USD = 0.833 CUC)

구분	항목	가격(USD)
식품류	쌀 1kg	2.44
	밀가루 1kg	16.50
	쇠고기 등심 1kg	23.44
	쇠고기 안심 1kg	14.19
	냉동새우(중간크기) 1kg	18.75
	우유 500ml	1.06
	요거트 150g	0.94
	오렌지 1kg	0.05
	양배추 1kg	0.50
	양상추 1kg	0.25
	생수 1L	1.19
	담배 1갑	2.50
소비재	치약 150g 1개	5.63
	샴푸 400ml	6.88
가구류	소파 3인용(패브릭)	283.75
의료비	병원진료비(의료보험X)	43.75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5
통신비	전화개통비 1회선	100.00
	전화사용료 월 기본요금	10.00
부동산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4,000.00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3,000.00
가전기기	LCD TV 40인치	4,147.81
	DVD Player 범용형	181.94
사무용품	복사용지 1권 250매 (A4 또는 Letter Size)	3.13
문화생활비	개봉극장 입장료 1회 (성인)	2.50
식당	패밀리레스토랑 4인	200.00
숙박비	특급 호텔(5성급) 1박	144.25
여가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95.00
노무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1,375.00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1,375.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서비스	여성 헤어컷 1회	12.50
	남성 헤어컷 1회	6.00

2. 이주정착 가이드

가. 개요

쿠바에 우리기업이나 기관이 없는 만큼 이주정착 가이드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으나 향후 진입을 노리는 기관을 위해서 중요도 순으로 간략히 정리하자면 건강과 생활 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갈만한 쿠바 내 병원은 Cira Garcia 한곳에 불과하며 이 곳 또한 약이나 주사 등이 부족하여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 인근국이나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건강에 유의 해야 한다.

기관장일 경우 반드시 쿠바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정부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살만한 주택의 경우 이미 외국인들이 다 차있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 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쿠바에는 자동차 딜러들이 들어와서 차량 정비 및 부품 수입을 할 수 없고 정부가 직접 하는데 외화부족 및 관료주의로 자동차가 고장나는 경우 수개월씩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비소 보다 음성적으로 민간인들이 수리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쿠바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 마이애미나 파나마, 멕시코 등에서 출장 시 가져와야 하며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에서 양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유관기관 웹사이트

쿠바 상공회의소: www.camaracuba.cu

쿠바 무역진흥센터: www.cepec.cu

쿠바 정부통합사이트: <http://www.cubagob.cu/>

쿠바 외무부: <http://europa.cubaminrex.cu/index.htm>

쿠바 재무부/물가관리소: <http://www.mfp.cu/>

쿠바 국민권력회의: <http://www.parlamentocubano.cu/>

중앙은행: <http://www.bc.gov.cu/Espanol/default.asp>

Nuevo Herald(쿠바 뉴스, 스페인어): <http://www.elnuevoherald.com/>

Juventud Rebelde(노동조합 총동맹의 기관지): <http://www.juventudrebelde.cu/>

El Economista(경제전문가협회 발행 신문): <http://www.eleconomista.cubaweb.cu/>

아바나 대학: <http://www.uh.cu/>

국제정책센터의 쿠바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ciponline.org/cuba/>

마이애미 대학의 쿠바 연구 센터:

http://lacc.fiu.edu/centers_institutes/?body=centers_cri&rightbody=centers_cri

쿠바 대외무역부: <http://www.mincex.cu>

쿠바 기관지(Granma): <http://www.granma.cubaweb.cu>

쿠바 항공사: <http://www.cubana.cu>

